

北韓의 對外貿易 現況

1992. 3

교류협력국

본 자료는 일본무역진흥회 해외경제정보센터에서 91년 12월 발간한 「북한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 중에서 “북한의 대외무역”부분을 발췌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 업무 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번역·발간한 것입니다.

목 차

머리말	1
제 1 절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3
제 2 절 선진공업국	12
제 3 절 개발도상국	24
제 4 절 중국·소련	51
제 5 절 변화하는 북한의 대외무역 전략	62

머 리 말

1990년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해서 일본무역진흥회가 주요 무역상대 39개 국가 및 지역의 무역통계를 기초로 추계한 것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1.9%가 증가한 42억 5,071만 달러였다. 8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0.1%가 줄어들었던 것에 비하면, 90년의 무역이 적게나마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수출은 6.6%가 증가한 17억 1,563만 달러, 수입은 1.0%가 줄어든 25억 3,508만 달러였다(별표 1)¹⁾. 이 글에서는 국내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대외무역이 80년대 중반 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발전을 성취하여 왔는가, 특히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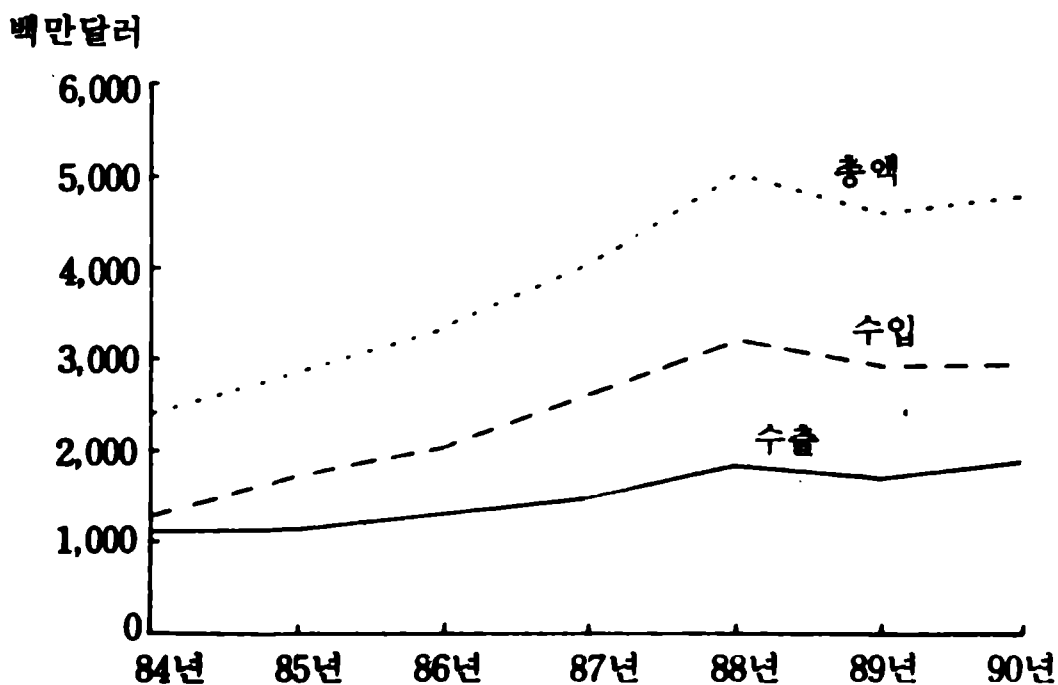
이하 제1절에서는 80년대 중엽부터 90년에 걸친 기간 동안 북한의 무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특히 그 상대방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가를 살필 것이다. 제2, 3, 4절에서는 주요 국가·지역의 대북한 무역동향을 선진공업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북한의 전통적인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 소련의 순으로 가능한 한 품목별 통계를 포함하여 최근의 동향까지 상세히 서술하려고 한다.(일본에 대해서는 青木和雄의 「1990년의 일조무역」 제3장, 玉城素의 「일본의 대북한경제협력」 제4장 참조). 제5절에서는 전절들에서 살펴 본 대외무역의 변화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가를 살펴보고 장래를 전망해 보려고 한다.

아울러 본문 중에서 「국」(예를 들면 「· · 개국」)이라는 말은 반드시 국제법상의 국가를 나타낸 것은 아니고, 편의상 홍콩 등의 지역도 포함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제 1 절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1984~90년)

이 절에서는 84년부터 90년에 걸친 7년동안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의 변화를 살펴 보려고 한다. 이 절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당해 기간 동안의 추세를 일관성있게 관찰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DOT)* 91년판²⁾에 게재된 북한무역통계에 소련의 대북한무역액(달러환산)³⁾을 더하여 작성한 것이다 (별표 2). 첫머리에서 말한 일본무역진흥회(제트로)의 추계액과의 차이는 일차적으로는 DOT가 수록하고 있는 국가·지역 수의 차이에 의한 것이고, 기타 사용한 환산비율(현지통화 대 달러)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⁴⁾

〈그림 1〉 북한의 대외무역동향(1984-90년)



出處 : 별표 2에 근거하여 작성.

〈표 1〉 북한의 수출입주요국별 시장점유율

수출시장점유율

84년			85년			86년			87년		
소련	40.33		소련	42.93		소련	48.96		소련		
중국	22.29		중국	19.69		중국	19.46		일본		
독일	12.16		일본	14.25		일본	11.77		중국		
일본	11.80		독일	4.96		독일	4.89		독일		
홍콩	1.91		폴란드	1.84		폴란드	1.72		홍콩		
폴란드	1.66		방글라데시	1.74		홍콩	1.53		폴란드		
루마니아	1.64		홍콩	1.62		방글라데시	1.46		멕시코		
인도네시아	0.99		루마니아	1.61		인도	1.29		루마니아		
방글라데시	0.95		체코슬로바키아	1.53		체코슬로바키아	1.08		인도네시아		
체코슬로바키아	0.90		태국	0.91		루마니아	1.04		헝가리		

수입시장점유율

84년			85년			86년			87년		
소련	36.28		소련	50.34		소련	58.32		소련		
일본	21.66		일본	15.98		중국	13.80		중국		
중국	19.29		중국	15.32		일본	10.01		일본		
홍콩	4.09		홍콩	3.23		홍콩	4.04		독일		
독일	1.93		독일	1.57		독일	2.10		홍콩		
호주	1.85		호주	1.43		루마니아	1.04		멕시코		
폴란드	1.80		루마니아	1.18		폴란드	0.91		호주		
인도	1.37		체코슬로바키아	0.98		이탈리아	0.90		프랑스		
인도네시아	1.37		인도	0.85		태국	0.70		폴란드		
프랑스	1.13		인도네시아	0.85		체코슬로바키아	0.55		헝가리		

註 : 시장점유율의 상위 10개국
 單位 : %
 出處 : 별표 2에 따라 작성.

	88년		89년		90년	
46.49	소	련 48.70	소	련 52.84	소	련 56.40
14.82	일	본 16.10	일	본 15.87	일	본 14.60
14.62	중	국 11.65	중	국 9.89	중	국 7.62
6.43	독	일 2.25	홍	콩 2.04	독	일 2.73
1.97	멕시코	1.69	멕시코	1.83	인	도 2.55
1.46	태	국 1.58	독	일 1.51	인도네시아	2.55
1.43	홍	콩 1.54	플	란드 1.09	멕시코	1.92
1.18	플	란드 1.31	태	국 1.04	홍	콩 1.39
1.09	헝	가 리 1.16	헝	가 리 0.96	태	국 1.24
0.36	루	마 니 아 1.14	인도네시아	0.91	말	레이 지 아 0.99

	88년		89년		90년	
54.17	소	련 60.07	소	련 56.50	소	련 57.13
11.87	중	국 11.87	중	국 13.72	중	국 13.82
9.25	일	본 8.21	일	본 7.43	일	본 6.63
5.44	홍	콩 4.03	홍	콩 5.05	홍	콩 4.06
4.56	호	주 1.49	독	일 2.80	호	주 3.31
1.64	독	일 1.38	호	주 1.25	독	일 2.35
1.56	멕시코	1.33	플	란드 1.11	인	도 1.28
1.16	플	란드 1.03	인	도 1.08	인도네시아	1.28
1.07	오스트리아	0.65	인도네시아	1.08	플	란드 1.11
1.02	이탈리아	0.64	헝	가 리 0.82	체코슬로바키아	0.87

(1) 개황 - 90년까지 7년 동안에 두배로 증가

북한의 대외무역을 84년과 90년 두 시점에서 비교하면, 총액에서는 24억달러에서 47억 7,700만 달러로 약 2배(명목)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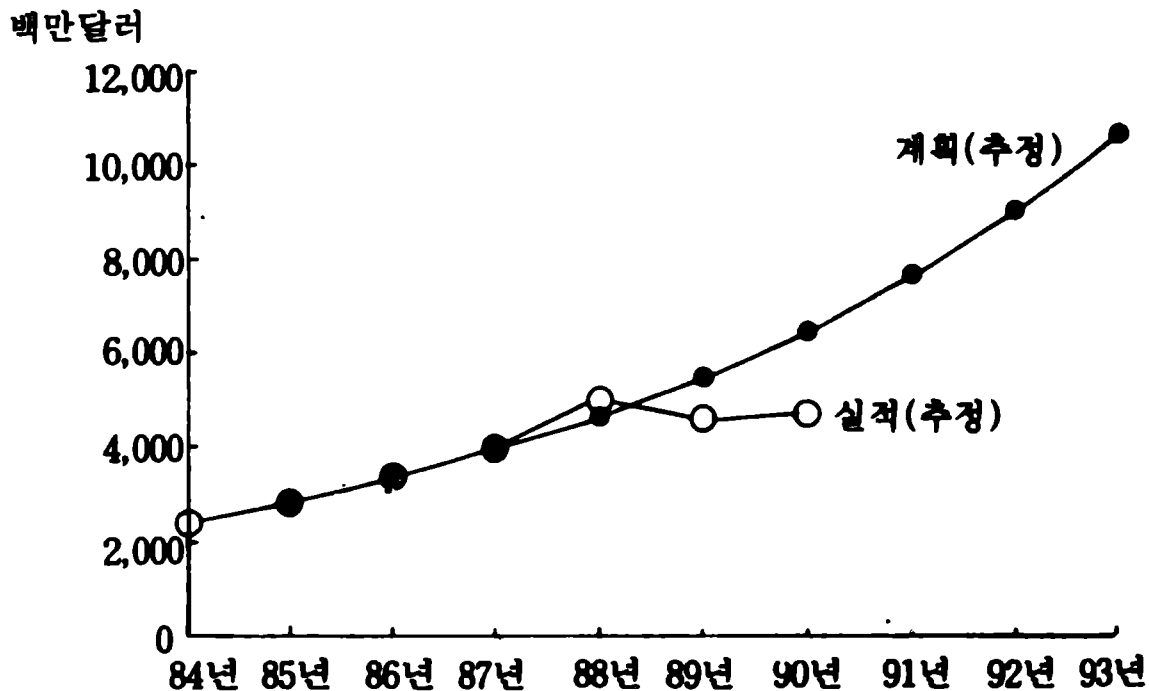
이중 수출은 11억 1,000만 달러에서 18억 5,700만 달러로 1.7배, 수입은 12억 9,000만 달러에서 29억 2,000만 달러로 2.3배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연평균 증가율로 고치면 총액은 12.2%, 수출이 9.0%, 수입이 14.6%가 된다. 이처럼 수입이 수출을 능가하는 기세로 신장된 결과 무역적자는 84년의 1억 7,900만 달러에서 90년에는 10억 6,200만 달러로 5.9배로 크게 팽창하고 있다.

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84년부터 88년의 연평균증감율은 총액에서 20.2% 증가, 수출이 13.2% 증가, 수입이 25.5% 증가하는 등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지만, 8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각각 8.6%, 7.5%, 9.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각각 4.1%, 10.2%, 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증가세로 전환된 것처럼 보였으나 절대액으로는 88년의 최고액을 상회하지 못하는 액이었다. 84년부터 90년까지의 연평균증감율은 총액이 12.2%, 수출이 8.9%, 수입이 14.6% 증가한 것이 된다. 즉, 전술한 대로 84년에는 1억 7,900만 달러였던 무역적자가 88년에는 13억 7,710만 달러로 피크에 달하고, 90년에는 10억 6,20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87년 4월에 정해진 「제3차 7개년계획」(87~93년)에서는 기간중에 무역을 3.2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절에서 사용된 86년의 총액 33억 4,590만 달러를 단순히 3.2배 해보면 93년의 계획 종료시의 총액은 107억 675만 달러가 되고, 계획 기간중의 연평균증가율은 18.1%가 된다. 그림2에서 보면 계획이 시행된 직후인 87, 88년은 이 「계획치」를 약간 상회하는 실적이었다. 그러나 89, 90년의 실적은 「계획치」에 점점 더 크게 미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⁵⁾ 아울러 87, 88년의 무역이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무역확대가 수입의 급증에 따른 것이며 일반적으로 그것은 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성공이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⁶⁾

〈그림 2〉 「제3차 7개년계획」期の 대외무역



出處: 계획에 관해서는 본문참조. 실적은 별표 2에 의해 작성.

(2) 무역상대국의 변화

이어서 무역상대국의 변화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림 3,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입에서 항상 소련이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일본을 더한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항상 4분의 3 전후에 달하고 있다. 약간 직판적인 해석이지만, 근래의 북한의 대외무역 증가는 주로 대소무역 증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기타」로 분류되는 국가와의 무역에서는 특히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다.

표1은 연도별로 수출입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이 큰 10개국을 순위별로 나열한 것이다. 우선 주요 국가에 관해서 살펴보면 소련의 시장점유율은 압도적이고 또한 수

〈표 2〉 북한의 수출입(주요국별) 증감기여도

북한의 수출증감기여도

85년	기여도	86년	기여도	87년	기여도
對世界增減率	1.7	對世界增減率	16.1	對世界增減率	12.0
소련	3.3	소련	13.9	일본	4.8
일본	2.7	중국	2.9	소련	3.1
방글라데시	0.8	인도	0.8	독일	2.3
태국	0.7	독일	0.7	멕시코	1.6
체코슬로바키아	0.7	프랑스	0.3	인도네시아	0.9
홍콩	-0.3	인도네시아	-0.2	말레이시아	-0.1
오스트리아	-0.3	태국	-0.3	체코슬로바키아	-0.2
인도네시아	-0.4	체코슬로바키아	-0.3	인도	-0.3
중국	-2.3	루마니아	-0.4	방글라데시	-0.6
독일	-7.1	일본	-0.6	중국	-3.1

북한의 수입증감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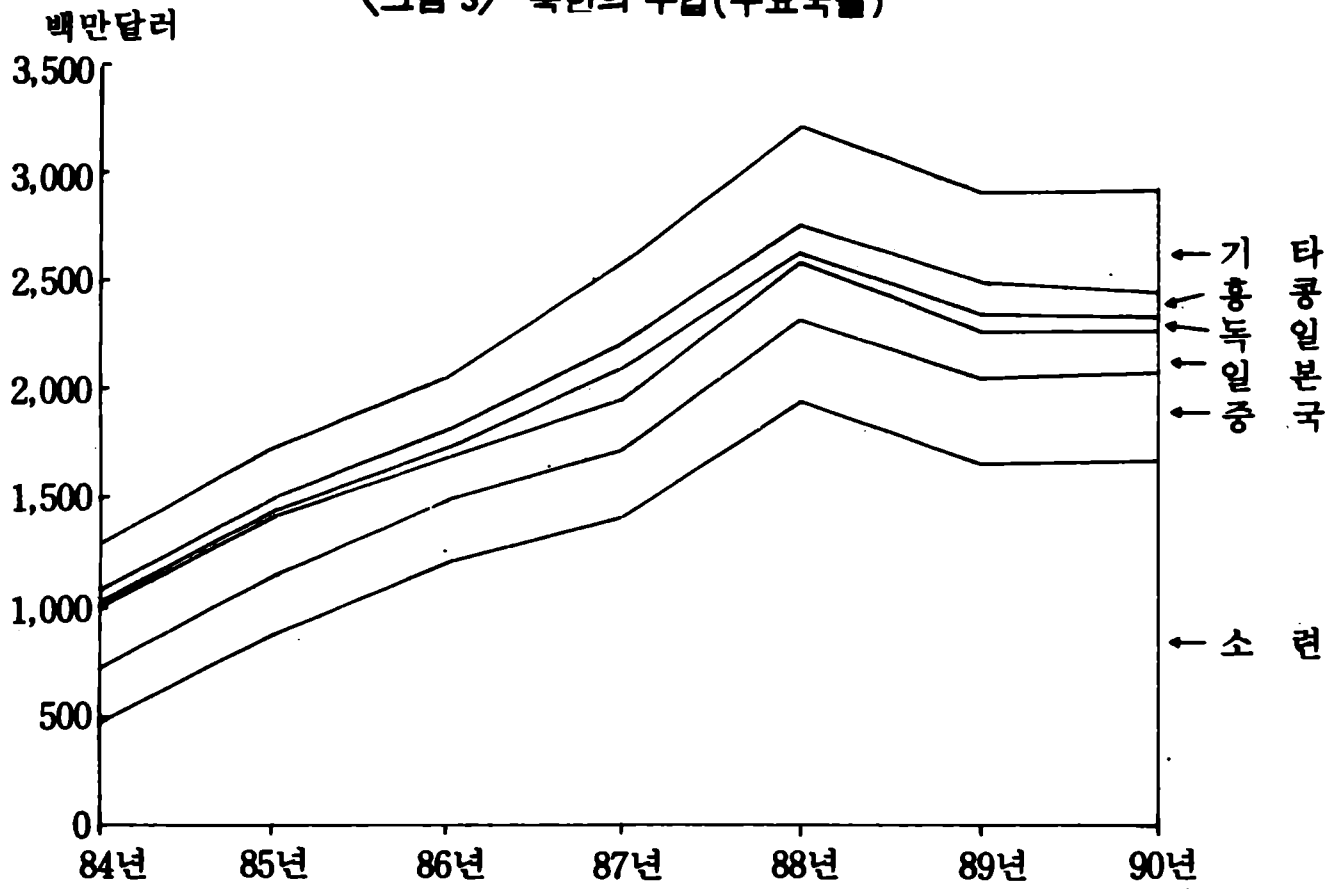
85년	기여도	86년	기여도	87년	기여도
對世界增減率	33.1	對世界增減率	18.5	對世界增減率	26.2
소련	30.7	소련	18.8	소련	10.1
중국	1.1	홍콩	1.6	독일	4.8
태국	0.7	중국	1.0	멕시코	2.1
루마니아	0.4	독일	0.9	호주	2.0
체코슬로바키아	0.4	폴란드	0.3	홍콩	1.7
인도네시아	-0.2	오스트리아	-0.3	인도네시아	0.1
일본	-0.4	인도	-0.6	루마니아	0.1
프랑스	-0.5	인도네시아	-0.6	이탈리아	0.0
폴란드	-0.8	호주	-1.4	체코슬로바키아	-0.1
말레이시아	-0.9	일본	-4.1	태국	-0.5

單位：%. 出處：별표 2에 따라 작성.

88년	기여도	89년	기여도	90년	기여도
對世界增減率	24.1	對世界增減率	-7.5	對世界增減率	10.2
소련	13.9	인도네시아	0.4	소련	9.3
일본	5.1	홍콩	0.3	인도	1.9
태국	1.3	소련	0.2	인도네시아	1.9
말레이시아	1.1	스페인	0.2	독일	1.5
오스트리아	0.7	인도	0.1	말레이시아	1.9
필리핀	0.0	태국	-0.6	오스트리아	0.0
홍콩	-0.1	말레이시아	-0.7	폴란드	-0.2
중국	-0.2	독일	-0.9	홍콩	-0.5
인도네시아	-0.5	일본	-1.4	헝가리	-0.6
독일	-3.6	중국	-2.5	중국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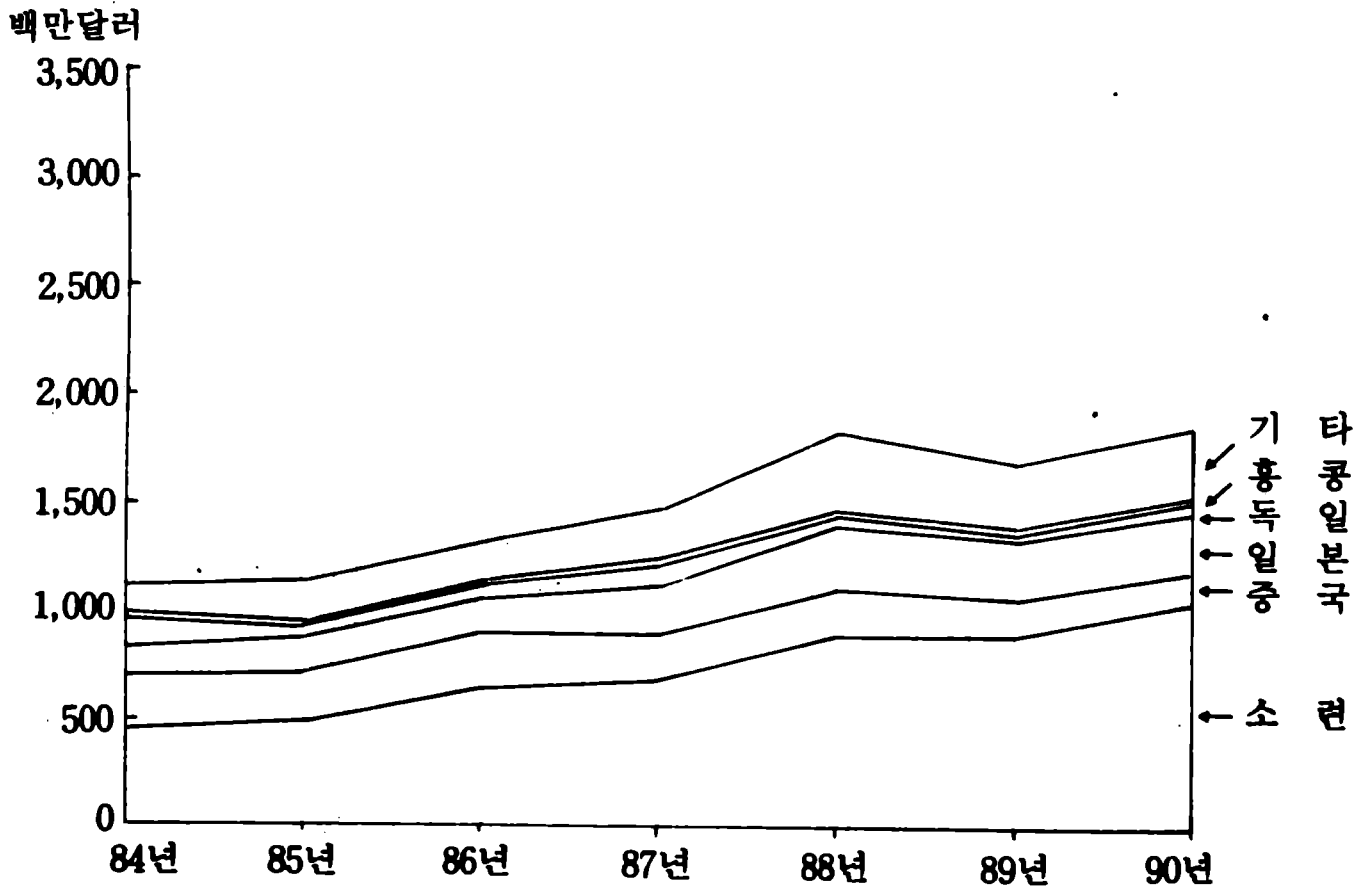
88년	기여도	89년	기여도	90년	기여도
對世界增減率	24.6	對世界增減率	-9.2	對世界增減率	0.5
소련	20.6	독일	1.2	호주	2.1
중국	2.9	중국	0.6	소련	0.9
일본	1.0	헝가리	0.6	체코슬로바키아	0.5
오스트리아	0.6	홍콩	0.6	오스트리아	0.5
홍콩	0.5	인도	0.5	베네룩스	0.3
스페인	0.0	오스트리아	-0.3	헝가리	-0.3
필리핀	-0.4	호주	0.4	무마니아	-0.3
프랑스	-0.5	멕시코	-0.4	독일	-0.4
헝가리	-0.8	일본	-1.5	일본	-0.8
독일	-3.7	소련	-8.8	홍콩	-1.0

〈그림 3〉 북한의 수입(주요국별)



出處: 별표 2에 의해 작성.

〈그림 4〉 북한의 수출(주요국별)



出處: 도표 3과 같음.

출의 경우 84년의 40.3%에서 90년에는 56.4%, 수입은 36.3%에서 57.1%로 각각 그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중국의 경우에는 수출입 모두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의 시장점유율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입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독일, 홍콩의 경우에는 수출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그외에 각국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이 거의 2%이하로 작고 그 순위의 교체도 심하기 때문에 경향을 잡기가 어렵지만, ① 폴란드, 루마니아의 동구 2개국의 시장점유율은 저하되고 있다. ② 90년에는 인도, 인도네시아의 아시아 2개국의 수출시장점유율이 확대되었다. ③ 동시에 호주의 수입 시장점유율이 상승한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표 2는 주요 국가의 수출입 증감기여도를 상위 5개국, 하위 5개국으로 나누어 본 것이다. 89년의 수출과 89, 90년의 수입을 제외하면 소련은 항상 상위 제1위이고 (89년 수입의 경우에는 하위 제1위), 한층 명백한 것은 대소무역의 성쇠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압도적인 영향을 주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앞에서 기술한 대로 수출대상으로서의 인도, 인도네시아, 수입대상으로서의 호주 등 새로운 무역 상대국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다음 절 이하에서는 주요 각국의 대북한무역을 금액으로 뿐만 아니라 품목의 변화에 관해서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이때에 가능한 한 최근의 동향, 또 무역 이외의 경제활동에 관해서도 서술할 생각이다.

제 2 절 선진공업국

(1) 대양주

① 호주

호주의 대북한무역은 압도적으로 호주측의 수출초과이다. 수출에 있어서는 소맥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89/90년도(7~6월)의 경우 15만 7,000톤을 수출하고 있다. 호주 정부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호주는 북한에 대해 원조·수출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 통계국(ABC)에 따르면 북한의 직접투자도 파악되고 있지 않다.⁷⁾ 그리고 호주는 75년에 북한과 단교하고 있지만, 91년 11월 조선로동당의 김용순서기(국제문제담당)가 호주 노동당의 초청으로 호주를 방문했다. 김서기는 에반즈외상과의 회견에서 국교회복을 신청했지만 시기상조라고 거절당하였다. 호주측은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또한 5,500만 호주달러의 대호주채무를 지불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국교를 회복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⁸⁾

〈표 3〉 호주의 대북한무역

(단위 : 千호주달러)

년도	수출	수출액중小麥 (千톤)	수입
85 / 86	25,697	13,114 (103)	986
86 / 87	29,591	10,625 (71)	803
87 / 88	88,578	56,979 (403)	254
88 / 89	15,017	5,409 (24)	268
89 / 90	39,270	30,608 (157)	359

出處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Foreign Trade Australia*, 각호에 의한 작성.

② 뉴우질랜드

뉴우질랜드의 대북한무역은 수출이 89년의 3.7만 NZ달러에서 90년에는 55.6만 NZ달러로 급증하였고, 거꾸로 수입은 1.1만 NZ달러에서 0.7만 NZ달러로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서는 89년이 벨브, 90년이 양피이고, 수입은 89년이 바지, 90년이 자동차클러치 등이다.⁹⁾

(2) 구주

① 프랑스

90년에 프랑스의 대북한무역은 수출이 전년대비 46.1% 감소한 6,014만 7,000프랑, 수입이 17.5%가 증가한 7,890만 4,000프랑으로, 수입은 전년도 실적을 능가하였으나 수출이 반감했기 때문에 전체무역액은 전년도에 비해 2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수지는 89년에 프랑스측이 흑자(4,400만 프랑)를 보였지만, 90년에는 반대로 2,000만 프랑 가까운 적자를 보이고 있다.

불·북한간의 무역은 액수가 적을 뿐 아니라 해마다 변동폭이 크다. 이를테면 89년에 700만 프랑이 넘는 원피수입이 90년에는 200만 프랑에도 미치지 못하고 90년에는 200만 프랑 정도인 사무기기·전자기기의 수출이 그 전년도인 89년에는 3,000만 프랑 이상의 실적을 올렸던 상태이다. 이 때문에 경향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수출면에서는 화학제품 등의 중간재가 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수입면에서는 가전제품과 의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다.

90년의 대북한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설비재, 소비재 등이 다함께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되고 있는 것에 비해 중간재는 「기타 유기화학제품」의 수출증가에 의해 전년실적을 상회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 중간재에서도 금속제품과 건설재료의 수출은 격감했지만 「기타 유기화학제품」의 수출은 전년도에 488만 프랑에서 1,850만 프랑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재 수출이 감소한 주요한 원인은 섬

유수출이 89년의 619만 프랑에서 90년에는 137만 프랑으로 갑자기 떨어진 때문이다. 이에 반해 수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원피의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 외에는 많은 품목에서 전년도 실적을 상회했다. 그 중에서도 의류품은 전년의 1,208만 프랑에서 2,362만 프랑으로 거의 배가 증가했고, 프랑스의 대북한 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9년의 18%에서 90년에는 30%까지 높아졌다. 또 가전제품도 같은 기간에 64만 프랑에서 245만 프랑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외에 사무기기·전자기기의 수입도 53만 프랑에서 231만 프랑으로 현저히 증가했지만, 무역관계자 사이에서는 동품목의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¹⁰⁾

〈표 4〉 프랑스의 대북한무역

(단위: 천프랑)

	수 출	수 입
'84	118,550	32,590
'85	61,583	38,225
'86	65,183	57,102
'87	157,176	57,056
'88	90,718	62,751
'89	111,556	67,108
'90	60,147	78,904

出處: *Statistiques du Commerce Exerieur* 연감에 의해 작성.

② 독일

독일은 북한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하나이지만 그 중에서 구서독지역의 대북한 무역에 대해서 살펴 보면 주요 수출입품목은 표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수출에서는

소위 완성품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독일과 양국 합동민간경제위원회를 설립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표 5〉 구서독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단위 : 천달러)

수 입	'89년	'90년	수 출	'89년	'90년
5. 원 료	8,959	9,729	3. 식물성식료품	7,697	4,633
532 기타 들 및 흙	8,530	8,598	301 소 맥	7,662	4,569
6. 반 제 품	3,477	12,385	6. 반 제 품	5,928	1,119
637 산업용의 금	3,402	12,280	616 철강반제품	4,461	
7. 섬유용원재료	129	275	8. 완 성 품	57,289	41,479
8. 섬유제품	14,568	30,693	826 압연기계	5,760	2,307
804 인건의복	10,307	24,861	828 농업기계·트랙터		12,290
806 목면제의복	1,734	2,066	831 압착공기펌프	1,285	376
9. 기 타	852	568	836 기타기계	9,830	9,979
합 계	27,994	53,765	841 전자제품	12,815	6,311
			843 정밀·광학제품	2,112	1,653
			857 자동차	18,512	3,859
			합 계	57,289	49,808

出處 : Statistisches Bundesamt, *Aussenhandel* 연감에 의해 작성.

③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북한으로 주로 기계류가 수출되고 있다. 수입은 액수가 적고 품목도 분산되어 있어서 주요 품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표 6〉 이탈리아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단위 :千里라)

	'89년	'90년
수 출		
대리석·雪花石膏	796	1,123
가죽제품	1,734	1,895
금속가공용공작기계	805	1,967
기타 공작기계	629	1,143
섬유기계	1,580	1,225
제지기계	236	1,822
인쇄용기계	2,376	12
기타 非電動기계	4,547	3,664
非電氣기계의 교체부품	2,211	902
합 계	27,372	24,889
수 입	2,844	6,434
무 역 수 지	24,528	18,455

出處 : 중앙통계국(ISTAT) 통계에 따라 작성.

④ 스페인

90년도에 스페인의 대북한 무역은 수출이 5억 1,620만 페세타(약 506만 달러), 수입이 19억 6,680만 페세타(약 1,928만 달러)이고 전년에 비해서 각각 165%, 109%의 신장을 보였다. 과거 5년간의 경향을 보면 수출은 연도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교체하고 있는 반면에 수입은 거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86년부터 90년에 걸쳐서 약 6배의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총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북한의 시장점유율은 90년의 경우 수출이 0.01%이하, 수입은 0.02%로 지극히 적다.

품목별로 보면 90년의 5대수출품목은 압연철강, 철강제품(3억 6,500만 페세타,

전수출의 71%), 가죽제품(10.3%), 식기·기타 가정용품(3.8%), 식물성착색료(2.0%), 마루에 가는 세라믹타일(1.8%)로 그외에는 화학품, 피혁, 섬유, 고무 등이 수출되었다. 같은 기간 수입에서는 금(미가공·반가공제품, 금가루, 7억 5,600만 페세타, 38.4%), 데이터 처리용 하드웨어·관련부품(35%), 천연탄산마그네슘·전기용해한 마그네사이트(8.9%), 가죽구두(구두밑바닥은 고무·프라스틱·가죽이고, 위부분은 전체가 가죽임, 5.4%) 무선전화·라디오·TV등(1.2%)이 5대 품목이었다. 경제대장성 관계자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이 많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수출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수출은 무엇보다도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경제대장성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89년에 스페인에 대해 13억 1,200만 페세타의 직접투자를 행하고 있다. 스페인에서의 조선요리 레스토랑 개설(11억 페세타)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금속·정밀가공산업, 수송·통신분야에 각 1건씩이다. 한편 스페인의 대북한투자는 없다.¹¹⁾

〈표 7〉 스페인의 대북한무역

	수 출	전년비	수 입	전년비	수지균형
86년	183,501	-	337,985	-	△ 154,484
87년	530,967	189	430,826	27	100,141
88년	440,659	△ 17	495,894	15	△ 55,235
89년	194,950	△ 56	941,124	90	△ 746,174
90년	516,197	165	1,966,798	109	△1,450,601

單位 : 1,000페세타, %

出處 : 스페인관세국

⑤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대북한무역은 89년 1~11월의 수출이 591만 DFL(약 279만 달러), 수입이 184만 DFL(약 87만 달러)이며, 90년 같은 기간에 각각 788만 DFL(약 423만 달러), 210만 DFL(약 99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은 표8과 같다.

〈표 8〉 네덜란드의 대북조선무역(주요품목별)

수 입	89년(1~11월)		90년(1~11월)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121 잎담배	80	478	6	36
278 粗 鑛 物	2,476	492	600	131
57 인조프라스틱	126	363	0	0
625 고무타이어·튜브	0	0	39	169
65 직물·섬유제품	—	48	0	0
662 광물성건축재료	21	36	0	0
761 텔레비전	0	0	—	9
84 의 류	—	8	52	1,611
851 신 발 류	—	3	2	79
894 완구·스포츠용품	1	110	0	0
897 身邊模造細畫	1	56	0	0
899 기타잡화	0	0	1	21
합 계	2,757	1,842	708	2,103

수 출	89년(1~11월)		90년(1~11월)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025 鳥 卵(새알)	20	138	23	247
041 소 맥	0	0	3,496	961
072 코코아	92	312	566	2,634
292 기타 식물성원재료	9	160	15	149
431 동·식물성가공유지	14	105	15	29
515 復素環式化合物	-	124	0	0
54 의약품	5	587	3	266
551 정유·향료	1	49	10	252
57 인조프라스틱	869	559	23	17
641 종이·판지	0	0	59	189
65 직물·섬유제품	26	199	1	4
691 철강·알루미늄제품	52	390	-	7
692 저장·수송용금속제용기	2	10	10	314
693 철선·강·망	40	169	0	0
711 증기보일러	0	0	1	119
713 피스톤식내연기관	5	509	12	805
722 트랙터	3	114	0	0
727 식품가공기계	2	33	11	305
741 가열·냉각기계	27	1,163	-	22
745 기타일반공업기계	6	315	0	0
874 계측·정밀기계·부품	-	166	2	131
898 악 기	0	0	-	667
합 계	1,431	5,911	4,385	7,881

註 : 품목분류는 SITC에 의함.

單位 : 1,000kg, 1,000DFL.

出處 : 네델란드 무역통계에 의해 제트로 암스테르담 사무소 작성.

⑥ 덴마크

90년에 덴마크의 북한과의 무역은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59.9% 증가한 865만 덴마크크로네(이하 크로네, 약 140만 달러), 수입은 206.5% 증가한 726만 크로네(약 117만 달러)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덴마크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북한의 시장점유율은 0.0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절대액에서도 상당히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다. 수출에서는 산업용기계, 식육류 등이, 수입에서는 생선류, 의약품류가 급증했다. 주요한 상담으로는 90년에 덴마크의 Thomas Schmidt사가 콘크리트공장용 기계를 북한의 Korea Jei Equipment Export and Import사(조선제2설비수출입상사)에 수출, 91년에 들어와서는 1월에 식품메이커인 Tulip사가 3,000만 크로네의 소세지수출을 수주한 것 등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덴마크에 대한 채무는 약 1,200만도이치마르크라고 알려지고 있으며 덴마크정부는 북한에 대해 수출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 원조제공도 하지 않고 있다.¹²⁾

〈표 9〉 덴마크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품 목	수 출		수 입	
	89년	90년	89년	90년
0 식료품 및 동물	46	1,825	84	1,285
01 육류 및 그 가공품	-	1,385	-	-
03 어류 및 그 가공품	-	-	-	1,285
2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원재료(광물성 연료를 제외)	194	337	56	-
5 화학공업생산물	234	54	24	2,005
54 의약품	-	-	-	1,998
6 원료별제품	730	762	663	-

7 기계 및 수송기계	2,243	5,591	707	2,007
72 특정산업용기계	1,590	2,914	-	-
73 금속가공기계	479	688	-	-
74 일반산업용기기와 그 부분	18	1,030	-	8
75 사무용기기와 자동식데이터처리기	-	172	236	452
76 통신기기, 방송수신기, 음성녹음 · 재생기기	-	106	396	627
77 기타 전기기기	7	271	74	863
78 도로주행차량	-	-	-	56
8 잡제품	1,607	843	828	1,204
84 의류 및 그 부속품	-	-	231	526
87 광학기기류, 의료용기기, 정밀기기류	634	270	-	17
합 계	5,410	8,650	2,370	7,263

註 : 국제상품표준분류방식(SITC)에 의함.

單位 : 1,000덴마크크로네(Dkr)

出處 : 덴마크 무역통계

⑦ 스웨덴

90년 1~11월에 있어서 스웨덴의 대북한무역은 수출이 7,567만 스웨덴크로나(약 1,277만 달러), 수입이 293만 크로나(약 49만 달러)였다. 수출은 89년의 2,305만 크로나에서 큰폭으로 늘고 있지만, 이것은 스웨덴 세관에서 직접 중고기계·기기가 대량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으로 90년도까지의 현상이라고 한다(표 10).

북한의 대스웨덴 채무는 10억 크로나(약 1억 6,500만 달러)에 달하고 있고, 스웨덴 외무성무역부에 따르면 북한과의 무역은 현금결제로 행해지고 있다. 대금미지불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에 대해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것이다.¹³⁾

〈표 10〉 스웨덴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수 출	89년	90년 1~11월	수 입	89년	90년 1~11월
원재료	856	1,056	식료품, 동물	-	457
벨 브	856	1,056	조 류	-	281
화학제품	579	925	원 재 료	731	-
화학품	499	-	천연비료, 원석(석	516	-
각종 화학제품	-	925	탄을 제외)		
가공품	1,231	1,909	가공품	933	346
종이·판지	-	399	금속제품	623	-
毛糸·섬유	271	557	기타 완성품	3,557	1,862
철·철강	640	509	여행용품	385	-
금속제품	-	415	의 류	912	566
기계·기기	18,974	71,337	신 발 류	962	687
발전용기계	513	-	측정기기	274	-
특수산업용기계	10,276	385	기 타	809	351
금속가공용기계	1,332	-			
기타 비전동기계	2,357	69,820			
전기기계·기기	1,687	318			
(전화이외)					
육상수송기기	2,809	808			
기타 완성품	1,364	-			
측정기기	251	-			
기 타	998	-			
합 계	23,047	75,674	합 계	5,475	2,930

單位 : 1,000스웨덴크로나

出處 : 스웨덴 무역통계

⑧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대북한무역은 89, 90년에 수출입을 모두 합해서 2,000만 노르웨이크로네(약 40만 달러)이고, 노르웨이의 무역에 차지하는 북한의 시장점유율은 0.01%이하에 지나지 않는다.

양국은 73년이래 국교가 수립되어 있어 북한측은 오슬로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측은 재중국대사관이 업무를 겸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국관계는 지극히 얽고, 노르웨이정부는 북한에 대해 정부개발원조, 수출신용공여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양국간에는 채무문제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¹⁴⁾

〈표 11〉 노르웨이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87년	88년	89년	90년
〈수 출〉				
철 강	-	-	-	4.2
기계기	-	-	22.1	15.9
대장	-	0.2	22.1	20.1
〈수 입〉				
원재료	-	-	0.5	2.3
옷감	0.5	3.9	4.5	0.9
신발류	0.5	-	-	-
합계	1.1	3.9	5.1	3.2

單位 : 100만 노르웨이크로네

出處 : 노르웨이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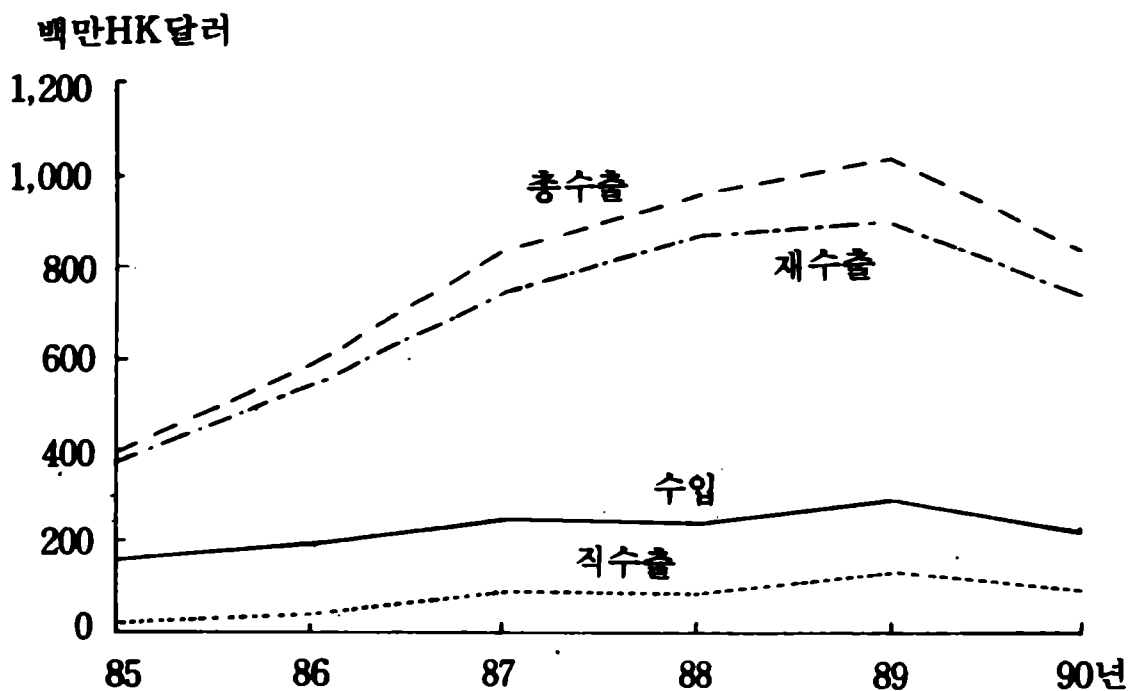
제 3 절 개발도상국

(1) 아시아

① 홍콩

홍콩의 대북한무역의 특징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재수출(타국에서 수입한 것을 북한에 수출)의 비율이 높아서 88년 90.8%, 89년 86.9%, 90년 88.8%가 되고 있어, 홍콩이 북한의 중계무역 거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표 12).

〈그림 5〉 홍콩의 대북한무역



出處: 별표 2에 근거하여 작성.

〈표 12〉 홍콩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품 목	수 입		직 수 출		재 수 출	
	89년	90년	89년	90년	89년	90년
0 식료품·동물	27,240	10,618	298	5,259	25,389	18,560
1 음료·담배	3,761	280	3,618	6,037	29,047	23,146
2 비식용원재료	110,996	53,885			61,293	47,675
3 광물성연료	15,816	22,125		74	934	539
4 동식물성유지			76		2,562	5,907
5 화학공업품	8,912	11,657	2,932	8,009	94,964	71,856
6 원료별제품	90,887	68,040	25,507	20,263	375,931	391,027
7 기계·수송기기	509	2,981	39,125	9,648	193,453	99,552
8 잡제품	35,104	50,620	63,423	43,390	113,703	83,491
9 특수취급품	334	563	964	1,359	2,396	3,046
합 계	293,560	220,769	135,944	94,039	899,673	744,801

單位 : 1,000HK 달러

出處 :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Hong Kong Trade Statistics Annual Supplement*, various years.

② 마카오

91년 4월 북한은 마카오에 여행회사 DPK Korea-Macau International Tourism Company(자본금 50만 파타카)를 설립하여 북한비자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여행자비자의 비용은 50달러로 1주간으로 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는 총경리로서 홍콩화교비즈니스맨 Wang Sing-Wa씨가 등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¹⁵⁾

③ 태국

태국의 대북한무역은 90년에 수출이 3억 1,588만 파츠(약 1,200만 달러), 수입이 7억 3만 파츠(약 2,700만 달러)이다(표 13). 태국의 총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북한의 시장점유율은 0.1%이하로 지극히 적다. 89년에 비해 수출에서 1.7배, 수입에서

1.4배가 증가하고 있다. 89년의 경우 전년도부터 계속 늘어나서, 최대의 수출품목은 곡물류(쌀)이고, 수입품목은 철강이었다. 90년도에는 수출에서는 쌀이 제로였던 것에 대신하여 고무가 최대수출품목으로 올라서고 있고 수입에서는 소금·프라스타류(구체적으로는 포틀랜드시멘트)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표 14).

91년 1월말 북한의 연형묵총리가 태국을 방문했을 때에 양국은 경제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태국으로부터 앞으로 3년동안에 100만톤의 쌀을 수입하고(89년의 경우 1만 3,000톤), 50만톤의 타피오카를 사료용으로 수입하며, 타피오카의 사료화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북한은 철강과 시멘트의 공급을 늘릴 방침(91년 중에 종래보다 30만~40만톤 증가)이고, 또 북한측이 태국기업과의 합작으로 태국에서 텅스텐과 안티몬채굴에 참여하는 것도 분명해지고 있다(Bangkok Post, January 31, 1991). 이러한 것으로 봐서 91년의 양국간 무역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태국정부당국은 북한이 경화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수출시장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The Nation, February 1, 1991).

그리고 태국과 북한은 75년부터 국교가 있었다. 태국측은 국방상의 이유에서 북한이 방콕에 대사관을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1월의 연총리의 태국방문 때에 양국대사관의 상호개설에 합의했다.¹⁶⁾

〈표 13〉 태국의 대북한무역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87년	112,231	268,342	-156,111
88년	132,497	800,284	-667,787
89년	182,913	493,710	-310,797
90년	315,882	700,032	-384,150

單位 : 1,000파츠

出處 : Customs Department, Finance Ministry, *Foreign Trade Statistics of Thailand* 등에서 작성.

〈표 14〉 태국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89년	90년
〈수 출〉		
곡 물	87,179	-
곡분·전분	31,437	26
커피·차·향신료	15,519	-
설탕·설탕과자	12,306	35,871
식용 야채	9,972	6,576
鹽·프라스타	8,448	8,574
기계기기·同부품	3,507	-
신 발 류	2,862	-
목재·목제품	1,959	2,062
유피엑기스	1,342	-
고무·同제품	877	44,705
광 석	-	4,029
기타 합계	182,913	315,882
〈수 입〉		
철 강	443,875	265,577
건·건직물	34,552	93,173
기계기기·同부품	3,940	3,350
무기화학품	3,143	3,945
철강제품	2,551	363
인조섬유의 短섬유·同직물	2,071	-
종이·판지·종이제품	1,255	-
목재·목제품	612	-
석·프라스타제품	531	585
광학·과학기기	343	-
鹽·프라스타	-	116,930
기타합계	493,710	700,032

註：HS분류 2 거래량에 따른 상위품목(89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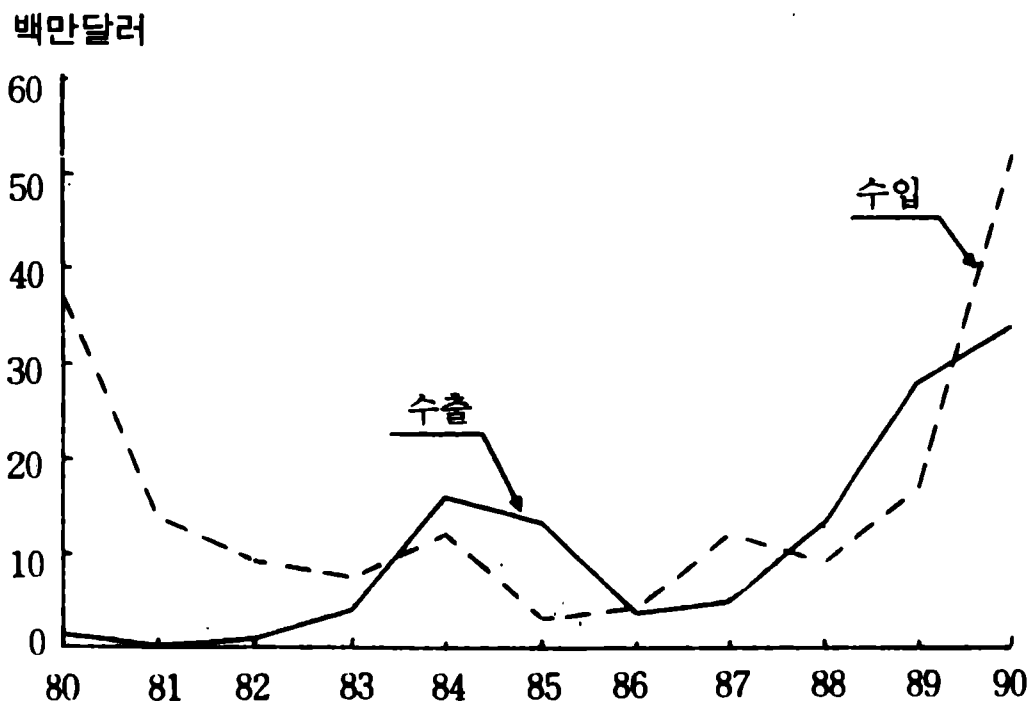
單位：1,000파츠

出處：표13과 같음.

④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대북한무역은 80년대 중반에는 저조하였으나 이후 수년동안에 수출입 모두 증가세로 바뀌고 있고(그림 6) 90년에는 수출이 전년에 비해 22%가 증가하였고, 수입은 208%가 증가하여 수입이 크게 늘었다. 주요 수출품목은 베니아 합판으로 90년의 경우 수출이 93.8%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에서는 철강제품, 기계·공구류가 주요 품목으로 화폐(금화, 통화는 제외)도 커다란 품목이 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표 15). 역시 91년 2월 1~4일, 북한의 연형묵총리, 김복신부총리·경공업위원회위원장, 정송남대의경제사업부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수하르토대통령 등과 회담했다. 양측은 63년에 체결된 양국간 무역·경제협정의 실행을 평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합의문서에 서명했다. 양국간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측은 천연고무, 커피, 차 등의 천연가공(석유·가스는 제외)상품을, 북한측은 공업제품을 각각 서로 제시했다. 무역방식으로는 신용장 및 대용구매의 두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북한대표단은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와도 회견을 갖고 무역확대를 위해 양국합동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¹⁷⁾

〈그림 6〉 인도네시아의 대북한무역



〈표 15〉 인도네시아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수 입	89년	90년	수 출	89년	90년
222 採油用種·과실	-	952	061 당류, 벌꿀	-	342
511 탄화수소등	954	947	071 커피등	627	109
611 가죽	343	464	251 벨브, 휴지	1,532	1,532
636 아연	-	536	284 니켈광·同精鍊	637	-
672 철강의 잉곳(주괴) 등	651	9,884	634 베니아·합판등	26,201	31,905
673 철강날, 행강	201	7,126			
692 금속의 용기	-	391			
724 섬유·피혁용원료	740	693			
728 기타 산업용기계	372	774			
733 금속가공용기계공구	-	6,228			
741 가열·냉각용장치	1,743	302			
745 기타 기계등	254	8,773			
782 화물·특수용도자동차	-	2,422			
874 제측·제어기기등	-	720			
961 화폐(금화, 통화물 제외)	3,973	6,420			
합 계	16,935	52,153	합 계	27,872	33,997

單位 : 1,000달러

出處 : Statistik Perdagangan Luar Negeri Indonesia (Indonesia Foreign Trade Statistics), various years.

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대북한무역은 말레이시아측의 수입초과로 나타나고 있다. 양국의 무역액(특히 말레이시아측의 수출)이 적은 이유로서 말레이시아 정부당국자는 북한의 외화부족을 들고 있다. 91년 2월 초순 동남아시아를 순방중이던 연형묵총리 일행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 연총리는 마하티르수상의 동아시아경제그룹(EAEG)구상에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마하티르수상은 연총리 일행에 대해서 대응구매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말레이시아의 무역이 민간부문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북한측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급할 수 있는가를 민간무역업자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¹⁸⁾

〈표 16〉 말레이시아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품 목	수 출		수 입	
	89년	90년	89년	90년
식료품·동물	348	27	47	166
음료·담배	—	—	39	—
비식용원료	828	434	28	2,095
광물성연료등	853	—	—	31
화학제품	53	43	818	9,426
원료별제품	139	118	1,709	31,143
기계·수송기기	692	269	2,645	9,851
잡제품	315	244	908	1,862
기타거래	6	17	4	36
합 계	3,234	1,152	6,196	54,613

單位 : 1,000링기

出處 : Jabatan Perangkaan(Department of Statistics),

Ringkasan Perdagangan Luar Negeri(External Trade Summary) 各號에 의해 作成.

⑥ 필리핀

필리핀의 대북한수출은 85년을 끝으로 중단되었으며, 한편 수입에서는 89년의 경우 강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91년 6월 김달현부총리·대외경제위원장은 필리핀을 방문하여 아키노대통령과 비공식으로 회담했다.²⁰⁾

〈표 17〉 필리핀의 대북한무역

	수 출	수 입
85년	896	818
86년	0	2,092
87년	0	4,785
88년	0	4,261
89년	0	847
90년	0	6,898

單位 : 1,000달러

出處 : National Statistics Office, *Foreign Trade Statistics of the Philippines* 各號에 의해 作成.

⑦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대북한무역의 특징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재수출의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서 88년 76.3%, 89년 79.8%, 90년 78.7%에 이르고 있다. 수출입은 88년을 고비로 감소하고 있지만, 수입의 경우 주요 품목인 아연의 격감이 원인이 되고 있다.²¹⁾ 이것의 원인은 종래에는 싱가포르를 중계무역항으로 이용해 온 북한이 인근 동남아시아 제국과의 직접무역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이를테면 최근의 대인도네시아무역의 급증).²²⁾

〈표 18〉 싱가포르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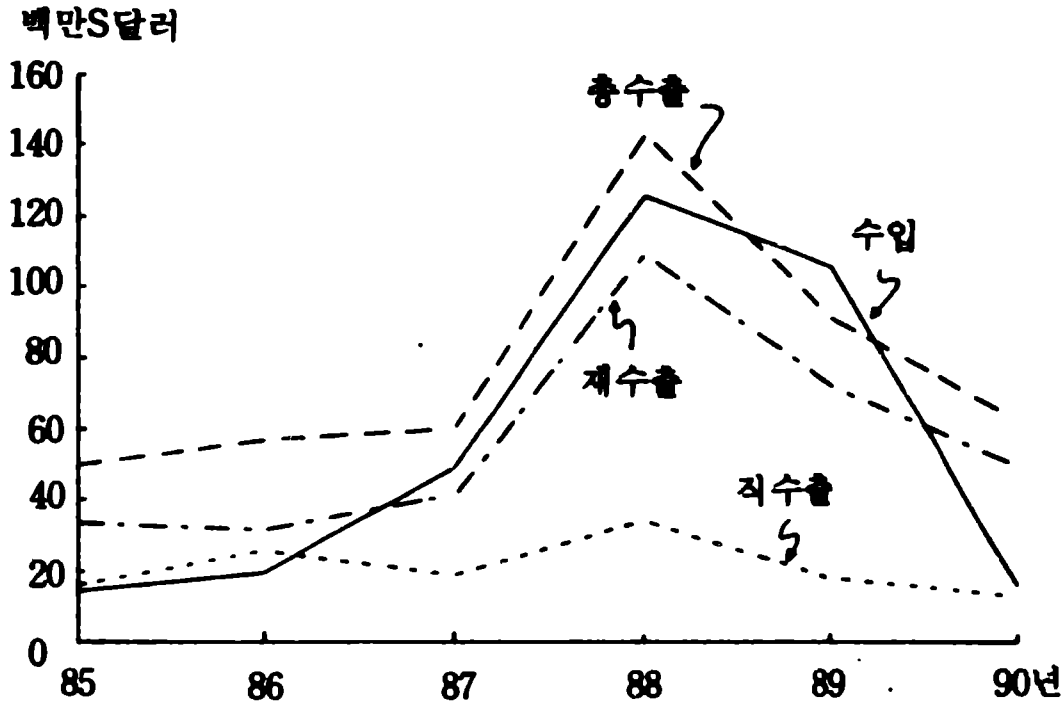
품 목	수입		총수출		직수출		재수출	
		89년	90년	89년	90년	89년	90년	89년
03 설탕·同가공품		19		3,084		3,084		
23 생고무(합성고무)		16	13,131	5,889			13,131	5,889
27 비료·粗광물			2,248				2,248	
28 금속광·부스러기	169		1,223				1,223	
33 석유·同제품*	820		5,614	5,073	5,324	4,612	290	461
42 식물성유지			12,898	12,525	3,811	2,636	9,087	9,889
43 기타동식물유			5,611	4,514	1,398		4,214	4,514
51 유기화합품		24	3,997	3,325		16	3,997	3,309
52 무기화합품		173	2,384	2,424	660	1,114	1,724	1,310
57 일차형태의 프라스틱	5,711		1,428		264		1,164	
58 非일차형태의 프라스틱	315		4,747		4,646		101	
64 종이제품	156	72	4,768	4,148	114	79	4,655	4,070
65 糸, 직물, 섬유제품	260	300	6,076	4,296	456	75	5,620	4,221
67 철강	920		1,337				1,337	
68 非철강금속	91,598	8,549	9,450	4,867	1		9,450	4,867
69 기타금속제품	1,621		330				330	
74 일반산업용기계		161		1,464		22		1,442
75 사무·데이터 처리기	6	199	3,713	1,347	728	477	2,985	870
77 전기기기등	771		1,456		142		1,314	
93 특수취급품	5	52	2,367	1,990			2,367	1,989
합 계	105,526	15,299	91,181	63,185	18,413	13,474	72,767	49,711

註 : *輸出에서 주된 것은 石油漚膏이외의 剩餘物(3354100)

單位 : 1,000S달러

出處 : Singapore Trade Statistics Imports and Exports, various years.

〈그림 7〉 싱가포르의 대북한무역



⑧ 인도

인도의 대북한무역을 저해하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첫째, 북한측의 지불체제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다는 점, 둘째, 해운 수송편이 나쁘다는 점, 셋째, 인도측의 대응구매를 위한 시도가 실패한 것 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가장 마지막 교섭은 87/88년도에 인도가 소맥을 수출하고 그 교환으로 북한으로부터 아연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이후에는 또 다른 시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인도와 북한 사이에는 직접투자와 경제원조는 행해지고 있지 않다. 인도의 수출신용보증공사(Export Credit Guarantee Corporation)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보험료율은 타국에 비해 8~10배나 높다고 한다.²¹⁾

〈표 19〉 인도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수 출	88/89년도	89/90년도	수 입	88/89년도	89/90년도
철광	140.1	189.1	전기기계	199.9	142.9
	(9.6)	(11.6)		(13.7)	(8.6)
기타금속광	34.9	50.3	철강제품	72.6	102.9
	(2.4)	(3.0)		(5.0)	(6.2)
피혁·同제품	54.7	17.5	비철금속	207.1	47.0
	(3.7)	(1.1)		(14.2)	(2.8)
기초화학품	80.9	163.1	수송기기	21.1	30.7
	(5.5)	(9.8)		(1.4)	(1.8)
기타	87.4	73.3	기타	168.0	137.6
	(5.8)	(4.4)		(11.8)	(8.5)
합계	398.4	493.3	합계	668.7	461.1
	(27.0)	(29.9)		(46.1)	(27.9)

註：年度는 4~3月

單位：百萬루피(百萬달러)

出處：商業省

⑨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대북한무역은 90/91년도(7~6월)의 경우 수출이 800만 루피(약 33만 달러), 수입이 550만 루피(23만 달러)로 전년실적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수출이 크게 신장된 결과로 파키스탄측의 수출초과로 바뀌었다. 89/90년도의 주요 수출품목은 견사(코오마사), 주요 수입품목은 철강봉이었다. 그리고 91년 10월에는 북한의 김달현부총리가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양국 경제합동위원회 제5차회의에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 1년간의 무역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무역다

각화를 위해서 수출 가능품목 리스트를 교환했다. 또 양국은 전람회를 양국에서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은 파키스탄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력발전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서 지하철과 조립식 주택건설에서도 새롭게 기술원조를 할 의사를 표명했다.²⁴⁾

〈표 20〉 파키스탄 대북한무역

	수 출	수 입
87 / 88년도	1,713	3,377
88 / 89년도	92	1,846
89 / 90년도	3,030	3,693
90 / 91년도	8,027	5,530

註：年度는 7~6月

單位：1,000무우피

出處：Federal Bureau of Statistics

Foreign Trade 各號에 의해 作成.

(2) 중동 · 아프리카

① 터어키

터어키는 북한과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터어키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북한의 시장점유율은 수출에서 0.03%, 수입에서 0.001%(89년)로 지극히 낮은 수준에 있다. 그러나 90년에는 북한에 대한 수출이 89년의 356만 달러에서 2,57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것은 90년에 小型條鋼이 일거에 1,950만 달러나 수출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90년에는 여기에 더하여 나사류의 수출이 늘어난 외에도 담배도 수출되었다(표 21).

수입도 약 23만 달러에서 91만 달러로 급증하고 있다. 90년의 최대 수입품목은 쇼크완화용 플라스틱이고, 금액은 30만 달러였다. 대북한무역에서는 수출입 모두 일상적인 거래는 적고, 일시적 거래의 색채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²⁵⁾

〈표 21〉 터어키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품 목	89년	90년
〈수 출〉		
02 육류 및 식용의 고기부스러기	-	25,589
03 어류 및 곡류등	-	44,545
05 동물성생산물(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2,000	-
08 식용의 과일 및 땅콩	-	67,375
09 커피, 차, 마테 및 향신료	-	5,267
13 락카 및 견,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	42,480	-
20 야채, 과일, 땅콩 기타 식물의 부분의 가공품	30,956	1,154,485
24 담배 및 제조 담배대용품	-	776,089
26 광석, 고철류	1,116,500	-
28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 방사성원소등의 화합물	37,322	137,068
32 유리액기스, 염색액기스, 탄닌, 염료등	187,607	660,790
40 고무 및 그 제품	216,470	-
42 가죽제품 및 동물용장신구 및 여행용구등	6,035	-
43 모피 및 인조모피 및 그 제품	22,310	66,000
51 양피, 毛 및 馬毛의 糸 및 이들의 직물	-	41,215
52 면 및 면직물	-	49,436
53 기타 식물성방직용섬유 및 그 직물등	-	3,500
55 인조섬유의 短섬유 및 그 직물	-	19,360
57 용단 기타 방직용섬유의 상용부속물	-	31,737
63 방직용섬유의 기타제품, 세트, 중고의류등	-	221,113
68 석재, 프라스타, 시멘트, 석면 기타 이것에 속하는 재료의 제품	-	32,161
69 도자기제품	112,229	-
70 유리 및 그 제품	469,502	1,304,949
72 철 강	-	19,506,385
73 철강제품	-	1,447,934
74 鋼 및 그 제품	1,317,124	16,554
84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40,000
85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등	-	14,265
94 가구, 침구류 및 조명기구류 및 조립식 건축물	-	2,429
96 잡 제품	-	28,980
합 계	3,560,535	25,697,225

품 목	89년	90년
<수 입>		
품 목	89년	90년
27 광물성연료 및 광물유동	-	187,500
32 유피엑기스, 염색엑기스, 탄닌, 염료등	6,200	-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300,940
42 가죽제품 및 동물용장신구 및 여행용구등	1,797	13,113
52 면 및 면직물	-	34,545
53 기타 식물성방직용섬유 및 그 직물등	-	2,191
54 인조섬유의長者섬유 및 그 직물	8,269	78,760
58 특수직물, 타우텔직물류, 레이스등	10,106	67,026
64 신발, 모자, 우산, 지팡이등 및 우모제품등	4,524	61,362
84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407
85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등	166,581	168,930
90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정밀기기등 및 이들의 부분품	14,329	-
95 완구, 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	2,969	-
96 잡 제품	8,880	-
합 계	228,566	614,773

單位 : 달러

出處 : 터키 외국무역통계에 의해 제트로 이스탄불 사무소 작성.

② 이란

이란의 대북한무역에 대해서는 이란측에서도 최근의 무역통계를 공식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독일에서 발행되고 있는 Iran

Yearbook 1988년판에 따르면 88년의 무역액은 6,00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란의 Ayatollahi광산·금속상이 평양에서 서명한 양국간의 비망록에서는(시기불명확), 89년의 무역액을 3억 달러로 예정하고 있다.²⁶⁾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상은(대략 89년 12월) 테헤란 방문때에 연200만 톤의 원유를 이란에서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란은 북한에서의 석유탐사를 위해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다.²⁷⁾ 이란으로 부터의 대북한원유공급에 관해서는 한국연합통신이 테헤란 91년 3월 6일발 OPECNA통신을 인용하여, 91년 2월 27일~3월 3일, 이란국회대표단(카르비의장)이 북한을 공식 친선방문했을 때 매년 100만 톤의 원유를 공급할 협정을 체결할 것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하고 있다.²⁸⁾ 이것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91년 11월에 북한의 원유수입항인 선봉을 방문한 일본인 기자에게 북한의 항만총국당국자는 「(소련으로 부터의 원유공급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란, 중국 등에서의 수입을 증가시켜 대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이란으로부터의 원유도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²⁹⁾

③ 이라크

이라크도 최근의 무역통계를 공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명백히 알 수 없지만 DOT 88, 89년판(북한의 대이라크 수입액은 88년판 이후, 수출액은 89년판이후로 각각 게재되어 있지 않다)에 따르면 87년까지의 북한의 대이라크 무역은 표22에 나타나 있다.

〈표 22〉 북한의 대 이라크무역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수 출	3.1	3.1	3.0	2.7	2.4	1.9	1.7	2.3
수 입	14.6	12.4	10.5	10.0	8.5	6.0	6.8	—

註 : 89년판에는 수입액이 게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88년의 수입액은 불명.

單位 : 백만달러

出處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88, 1989.

④ 이집트

이집트의 대북한무역은 90년에 수출이 1,219만 이집트파운드(약 460만 달러), 수입이 243만 이집트파운드(약 93만 달러)였다. 적어도 이 5년간은 이집트측의 수출초과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원면이지만, 수입의 경우 매년 품목이 일정하지 않다(표 23).

〈표 23〉 이집트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수 출					
원 면	11,185	10,555	8,132	4,501	12,186
합 계	12,051	10,910	8,132	4,510	12,191
수 입					
탄산마그네슘	-	-	-	-	-
고무제품	93	36	-	-	-
합 판	40	-	-	-	-
건축용철강봉	-	-	-	-	2,379
원 자 로	-	-	-	11	-
기계부품	-	-	67	-	-
승용차(200cc이상)	-	-	-	55	-
가전제품·同부품	2	15	-	-	-
완시계동	-	43	-	-	-
합 계	134	96	6,201	66	2,432

單位 : 1,000 이집트 · 파운드

出處 : Foreign Trade Data Base에 의해, 제트로 카이로 센터 작성.

⑤ 탄자니아

탄자니아의 대북한경제관계는 무역액에서만 보면 그렇게 활발하다고 말할 수 없다. 89년의 대북한수출액은 3만 1,958달러(271만 3,274탄자니아실링), 수입액은 6만 9,364달러(588만 9,029탄자니아실링)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해 탄자니아의 총수출입이 각각 3억 9,542만 달러, 12억 2,980만 달러였던 것에서도 무역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품목을 보면 수출은 거의 대부분을 사이잘삼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입은 TV, 컴퓨터, 신발류, 테이프레코더, 펌프 등의 공업제품이 대부분이었다.

북한은 다르에스살람에 상설전시장을 갖고 있고, 이곳에서 매년 6,7월에 개최되는 국제전본시에 참가하고 있다. 전시품은 회화, 칠기, 가구, 섬유, 조화, 카페트 등으로 즉석에서 판매에 제공되어 시민들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제외하면 보통 북한제품을 시장에서 볼 수는 없다. 무역과는 달리,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는 비교적 활발하다. 탄자니아의 지배정당 CCM(혁명당)이 조선로동당과 우호관계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87년 12월 양국정부는 50 : 50의 합작기업 KOTACO(Korea Tanzania Agricultural Company)를 탄자니아에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쌀, 메이즈재배 등 농업개발에 종사하고 있다. 5만 헥타르의 개발을 계획하고, 90년 6월까지 920헥타르의 수전 개발을 끝내고, 헥타르당 수확량을 3톤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 개발계획의 노동자 611명 가운데는 51명의 북한인이 파견되어 있다. 그외에 북한은 탄자니아의 Kilombero District에 있는 Mpanga천의 수력발전소 건설공사에 약 3억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또 Dodoma에서 가까운 Chimwaga의 회의장 건설에 협력하여 200만 달러분의 자재를 공여할 예정이다.³⁰⁾

⑥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의 대북한무역은 90년 1~5월의 수출이 약 4,000달러, 수입이 약 64만 3,000달러로 규모가 적고, 나이지리아측의 수입초과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은 원료별 제품과 기계·운송기기이다.

〈표 24〉 나이지리아의 대북한무역

	수출 (나이라)	수출 (천달러)	수입 (나이라)	수입 (천달러)
88년	198,957	44	8,169,336	1,815
89년	30,460	4	5,016,164	681
90년 1-5월	30,000	4	5,081,098	643

出處 : 나이지리아 무역통계에 의해 제트로 라고스 사무소 작성.

〈표 25〉 나이지리아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SITC분류)

	88년	89년	1990년 1~5월
〈수 출〉			
식품 및 살아있는 동물	-	-	-
음료 및 담배	-	-	-
연료를 제외한 비식용원재료	198,957	-	-
광물성연료, 윤활유 및 관련재료	-	30,460	-
동식물유 및 지방	-	-	-
화 학 품	-	-	-
원재료별제품	-	-	-
기계 및 수송기기	-	-	-
잡 화	-	-	-
그외의 상품거래	-	-	30,000
합 계 (천달러)	198,957 (44)	30,460 (4)	30,000 (4)
〈수 입〉			
식품 및 살아있는 동물	-	-	-
음료 및 담배	-	-	-
연료를 제외한 비식용원재료	-	-	-
광물성연료, 윤활유 및 관련재료	-	-	-
동식물유 및 지방	-	-	-
화 학 품	18,318	-	192,409
원재료별제품	5,082,093	3,835,077	1,451,772
기계 및 수송기기	2,301,284	809,609	2,687,880
잡 화	767,641	371,478	749,037
그외의 상품거래	-	-	-
합 계 (천달러)	8,169,336 (1,815)	5,016,164 (681)	5,081,098 (643)

單位 : 나이라

出處 : Federal Office of Statistics 통계에 의해, 제트로 라고스사무소 작성

⑦ 코트디부아르

양국간의 무역은 사소하고, 또 북한은 코트디부아르에 투자·원조를 행하지 않고 있다.³¹⁾

〈표 26〉 코트디부아르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88년 (1-12월)	89년 (1-11월)	90년 (1-6월)
수 출			
카카오버터	19,278	-	-
연의 부스러기	-	5,070	-
합 계	23,558	5,070	0
(1,000달러)	(77.7)	(17.6)	(0.0)
수 입			
합 계	18,723	3,721	3,636
(1,000달러)	(61.7)	(12.9)	(14.3)

單位 : 1,000CFA프랑

出處 : 코트디부아르 무역통계에 의해 제트로 아비잔사무소 작성.

⑧ 자이레

90년 자이레는 북한에서 표 27의 품목을 수입했다. 그러나 자이레의 수출은 없었다.

〈표 27〉 자이레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90년		90년
수 출	0	스 키 화	18,699,531
수 입		모 자	391,561
살아있는 동물	348,861,933	헤 어 밴 드	16,846,337
프라스틱제 판, 띠	4,340,443	小立像, 陶製像	22,477
프라스틱제 핀,	54,256	기타 공예품	1,304,360
단추, 마개		방 범 유 리	850,402
장식물	4,617,030	테 없는 안경	285,430
타이어용 고무 튜브	12,950,081	보석장식품	177,774
천연피, 가공피제품	8,239,363	드라이버	77,845
그외 타피제품	533,716	작은 자물쇠	721,408
수첩, 장부	224,674	전 극 봉	9,507,638
노 트	7,052,808	펄 프	496,506
과학, 문학 그외 교육	25,261,662	공기조절기	15,573,151
서적 및 학용품		정보용기기	490,883
회화, 판화, 사진	1,135,936	축 전 지	16,808,837
화학섬유 85%이하의 포착	15,735,072	녹음용 기재	59,528,635
색포		녹음용 디스크밴드	8,628,631
상용섬유소재	1,068,752	TV수상기	41,168,701
T-셔츠, 면제품	124,252	소형 TV수상기	80,741,036
기타 모직물	16,160	중형TV수상기	83,745,414
스타킹, 구두	90,881	안 테 나	272,869
외투, 브라우스, 레인코트	37,179,828	여행용차량	20,142,400
양 복	753,200	카악세사리	84,942
유아용의류	986,124	풍 선	93,414
술, 스카프, 머플러	93,340	완 구	776,577
벨트, 신발끈	1,046,809	만년필, 볼펜	283,219
화 뉴	186,827	프라스틱 빗	1,364,737
운 동 화	23,334,803	기타 빗	697,271
		합 계	282,608,429
		(달러)	(416)

單位 : 자이레

出處 : 자이레 무역통계 의한 제트로 킨사사사무소 작성.

(3) 중남미

① 콜롬비아

콜롬비아측의 수출은 89, 90년 모두 없었고, 수입은 89년 60만 달러, 90년 50만 달러로 기계, 선반, 책자, 노트 등이 수입되고 있다.³²⁾

②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대북한 주요 무역품목은 표 28과 같다.

〈표 28〉 아르헨티나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88년	89년	90년
수 출	면 화	319	-	176
	어 (오 징 어)	-	-	961
	화 학 품(염 료)	-	-	15
	양 피	-	-	19
	합 계	319	0	1,170
수 입	화 학 품	8	-	-
	스 포 츠 용 품	1	-	-
	합 계	10	0	0

單位 : 1,000달러

出處 : 국가통계국(INDEC) 통계에 따른 제트로 부에노스아이레스사무소 작성.

③ 칠레

칠레의 대북한 주요 무역품목은 표 29와 같다.

④ 페루

페루의 대북한무역은 89년의 수출이 371만 달러, 수입이 783만 달러, 90년은 각각 제로, 51만 달러였다. 페루측의 대북한무역의 취급은 주로 국영기업에서 행해지고 있다.³³⁾

〈표 29〉 칠레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1989			1990		
품 명	수 출	수 입	품 명	수 출	수 입
화 학 약 품	8,000		화 장 품	3,000	
부 스 러 기 鋼	135,000				
섬 유		4,000	엘 범		3,000
편치 (천공기)		2,000	셔 츠		5,000
농 업 기 계		2,000	스 웨 터		7,000
공 작 기 계		81,000	스 포 츠 슈 즈		3,000
공 구		6,000	T V		2,000
불 반		10,000	프 린 터		7,000
후 라 이 즈 반		7,000	악 세 사 리		1,000
환 기 용 모 터		1,000	포 켈 트 라 이 타		2,000
광 석		3,000			
무 선 기		3,000			
컬 러 T V		32,000			
흑 백 T V		15,000			
컬 러 라 이 타		1,000			
발 전 기		13,000			
기 계 부 품		3,000			
기 타		62,000			
합 계	143,000	242,000	합 계	3,000	30,000

單位 : 달러

出處 : 칠레무역통계에 의해 제트로 산티아고사무소 작성.

(4) 구주

① 폴란드

폴란드의 대북한무역은 이제까지 수년동안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즈로치(폴란드의 화폐단위)로 파악한 무역액은 88년부터 89년에 걸쳐서 2배이상으로 늘고 있지만(표 30), 요즘에 즈로치가 대폭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1루블이 230즈로치에서 1,650즈로치로)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91년 1월부터 양국간의 무역은 지금까지 루블로 결제하던 방식에서 경화에 의한 결제로 방식을 바꾸었다. 그렇지만 88년 약 28억 즈로치, 89년 약 122억 즈로치, 90년 약 479억 즈로치(2,900만 루블)에 이르는 폴란드의 대북한무역채권을 어떻게 결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북한이 상품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균형을 맞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 무역이 루블로 결제가 행해지던 때에는 기업이 그 대금 수취를 보증받는 제도가 있었지만 91년 1월 이후에는 폴란드정부에 의한 신용공여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

현재 소수의 폴란드기업만이 북한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다(표 31). 이들 기업은 모두 평양의 폴란드대사관 상무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외에 합작기업인 북한·폴란드해운유한회사(영문명은 Korean-Polish Shipping Co., Ltd. 또는 Korean-Polish Maritime Brokers Co., Ltd.)가 북한~구주간의 해운·운송을 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에 있는 북한기업은 K-P Overseas Trading Co. 뿐이고, 90년 8월 그리비체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주된 업무는 폴란드에서 소비재를 수입하는 것이다. 그외에 양국합의 해운회사 Chopol Polish-Korean Shipping Lines는 그다니아에 있다. 일찍부터 폴란드·북한관계는 「양호하고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89년 비공산주의 정권이 출범한 이래, 또 90년에 한국과의 국교가 체결된 이래로 폴란드의 대북한 관계는 냉각하여, 이 수년간에는 고위층 정치가의 왕래가 없었다. 또 현재의 폴란드는 북한에 대해 경제협력을 하고 있지 않다.³¹⁾

〈표 30〉 폴란드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수 출		수 입	
	88년	89년	88년	89년
연 료	1,731	2,069	-	-
전 기 기 계	7,280	22,521	3,564	7,110
화 학 공 업 품	878	1,654	799	2,691
광 산 품	318	70	4,782	5,674
목 재 · 종 이	1	-	79	1,329
수 공 업 품	3,209	8,561	1,051	4,974
식 품	-	5	3	192
기 타 공 업 제 품	21	8	358	646
농 산 품	-	23	-	1
기 타 계	13,452	34,925	10,651	22,715

單位 : 100萬즈로치

出處 : 폴란드貿易統計

〈표 31〉 북한에 있는 폴란드기업

기 업 명	취급품목
BUMAR	건설기계
MINEX	광물자원
METRONEX	제측기기
METALEXPORT	기계공구 등
Polish Ocean Lines(PLO)	해 운

② 헝가리

최근 헝가리의 대북한 무역동향은 표 32와 같다.

〈표 32〉 헝가리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백만달러)

	86年	87年	88年	89年
수 출	180 (3.9)	1,125 (24.0)	2,189 (43.4)	1,048 (17.7)
수 입	260 (5.7)	658 (14.0)	727 (14.4)	802 (13.6)

單位 : 백만 위린트

③ 체코슬로바키아

89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북한에 수출한 주요 품목은 기계·수송기계였다. 그 내용은 화물자동차, 비전동기계·그 부품, 건설·광산기계, 승용차 등이다. 한편 수입에서는 원료별 제품이 가장 많고 기계·수송기기, 잡화류가 약간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내화벽돌, 은, 타이프라이터, 계산기용부품 등이다.³⁵⁾

〈표 33〉 체코슬로바키아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수 출	수 입
89年	150 (9.9)	226 (15.0)
식 료 품·동 물	-	1
비 식 용 원 료	-	13
화 학 품	25	5
원 료 별 제 품	18	98
기 계·수 송 기 기	103	73
잡 제 품	4	36
90年1~9月	256 (15.4)	210 (12.7)

單位 : 백만코르나(백만달러)

出處 : 체코슬로바키아 무역통계에 따른 제트로 비인센터 작성.

④ 유고슬라비아

89년에 유고슬라비아의 대북한수출은 371억 디날(180만 달러), 수입은 2,138억 디날(689만 달러)로 유고슬라비아측의 수입초과이다. 유고슬라비아는 주로 화학 제품, 기계류, 윤활유, 버스·트럭용타이어 등을 수출하고, 아연, 디지털식계산장치, 테이프레코더와 TV·라디오 등의 전자제품, 모피 등이 수입되었다.³⁶⁾

제 4 절 중국·소련

(1)중국

중국의 대북한무역은 그림8에서 알 수 있듯이 86년까지는 중국측의 수입초과였지만, 그 이후 86~90년 사이에 수출이 연평균 11%로 증가하고, 수입이 18%로 감소한 결과 중국측의 수출초과로 바뀌었으며, 흑자액도 매년 늘고 있다. 표34에 따라 주요 품목을 보면, 90년 수출의 경우 가장 많았던 것은 석유와 석탄 등의 광물성연료(90년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45.5%)이고, 여기에 식료품·동물(14.2%, 옥수수 등), 비식용원재료(12.7%, 대두, 면화 등), 원료별제품(12.3%, 타이어 등), 그리고 화학공업생산품(10.3%), 기계·수송기기(8.4%) 등이 있었다. 수입에서는 원료별제품(90년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37.2%, 철광 등), 광물성연료(26.8%, 무연탄), 식료품·동물(16.3%, 생선류, 쌀)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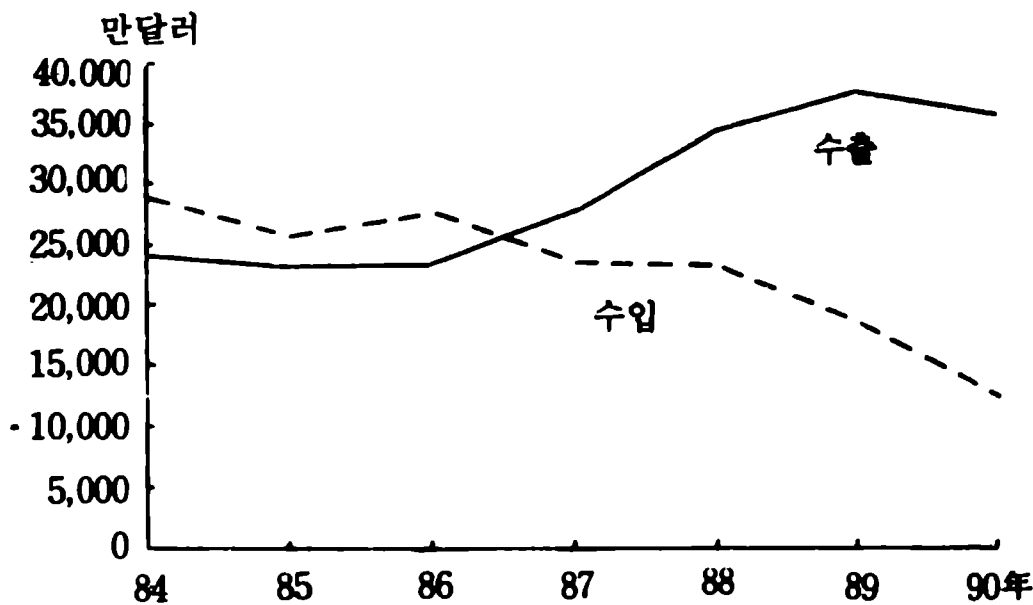
각품목의 수출입을 비교해 보면, 첫째, 기계·수송기기에서는 압도적으로 중국의 수출이 수입을 능가해 온 것, 둘째, 88년은 원료별제품에서 중국의 수출이 수입을 밀치고 있고, 또 식료품·동물과 화학공업생산품에서는 수출입의 균형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서 91년 상반기에는 모든 품목에서 수출이 수입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품목의 내용을 표35에 의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수출에서는 첫째, 옥수수의 수량이 86~90년의 5년 동안에 배이상 증가되고 있다는 것, 둘째, 원유의 수량이 86~88년의 120만톤 규모에서 89, 90년에는 107만톤가량으로 약간 감소하고 있다는 것 등이 특징이다. 한편 수입에서는 86~90년 사이에 첫째, 최대의 수입품목인 철강의 수량이 반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것, 둘째, 주요 품목인 무연탄의 수량도 반가까운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것, 셋째, 식료품·동물에서는 쌀의 수입수량이 늘고 있는 것에 반해³⁷⁾, 어패류의 수량이 3분의 1 가까이 감소하고 있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90년부터 91년에 걸쳐서도 양국간에는 주요 인물들의 왕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요한 것을 몇가지 들어보면 강택민 중국공산당총서기의 북한 방문(90년 3월), 김일성주석의 중국비밀방문(90년 9월), 연형묵총리의 중국방문(90년 11월), 이봉총리의 방문(91년 5월), 김일성주석의 중국방문(91년 10월)등이 계속되고 있다.³⁸⁾ 이러한 왕래를 통해 중국측은 북한에 대해(이를테면 연총리에게 중국에 설치된 일본계 기업을 시찰시키는 등) 경제개혁·대외개방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한편 북한측은 중국에 대해 경제원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경제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91년 5월의 이봉총리의 북한방문과 91년 10월의 김주석의 중국방문으로 전자에서는 중국측이 북한에 대해 92년부터 양국간 무역에서 경화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통고했다고 한다.³⁹⁾ 또 후자에서는 북한이 중국에 경제원조를 요구했지만 중국측의 태도는 냉랭했다고 해석하는 보도가 많았다.⁴⁰⁾ 한편 이에 관해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늘리는 등 원조를 강화한다는 보도도 있었다.⁴¹⁾ 91년에 들어서 부터의 중·조무역을 실태적으로 보면, 그림9에서 보는 바와 같이, 91년에 들어서서도 중국측의 수출 증가세와 수입의 감소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금액으로 보면 수출에서는 광물성연료(특히 석유)의 증가가, 수입에서는 식료품·동물의 감소가 각각 두드러지고 있지만(표 35), 종합적인 수량에 의한 통계가 아직 발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원유수출에 대해서 91년의 수출량은 1~9월의 페이스에서 추측해 보면 연간 총수출량은 108만톤 가량 즉 전년과 같은 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단가는 86~90년의 톤당 60달러 전후에서 91년에 들어서고 부터는 110달러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단가에 가깝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0, 표 35 참조)

이제까지 원유만이 「우호가격」으로서 통계상 뚜렷하게 거의 유일한 품목이었던 것에서 보면,⁴²⁾ 중국의 대북한무역이 경화에 의한 결제, 국제가격에 의한 수출이라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자주권이 확대된 중국의 무역기업은 지불능력이 불충분한 북한과의 무역에서 한층 소극적으로 될지도 모

른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정부가 「북한이 붕괴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파멸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만은 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⁴³⁾고 하게 되면, 원유 등의 중요물자공급은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외에 그외의 원조(이를테면 무역결제의 유예, 원조물자의 무상공여 등)를 계속하여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경화에 의한 결제·국제가격에 의한 수출」정책은 북한에 대한 「대여」의 금액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을 지렛대로 중국은 북한을 경제개혁·대외개방으로 유도하는 한편 중국과 한국의 국교정상화등을 피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림 8〉 중국의 대북한무역



出處：「中國海關統計摘要」各年，「中國海關統計年鑑」1990年版에 따른 作成.

〈표 34〉 중국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수출	88년	89년	90년	91년상반기
총액	34,535	37,737	35,816	24,455
0식료품·동물	3,435	7,576	5,068	2,766
04곡물·同가공품	2,257	4,459	3,093	1,232
1식료·담배	34	123	108	176
2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원재료(광물성연료를 제외)	5,987	4,787	4,511	3,014
3광물성연료·운할유·기타 여기에 속하는 제품	17,449	14,476	13,806	11,123
32석탄·코크스·연탄	9,093	7,285	7,106	4,131
33석유·석유제품 및 관련원료	8,355	7,192	6,697	6,992
4동물성 또는 식물성의 유지·납	83	27	16	12
5화학공업생산물	1,499	2,868	3,679	2,337
6원료별제품	2,809	3,300	4,402	2,292
7기계·수송기계	2,587	3,036	3,006	1,434
8잡제품	526	883	604	686
9특수취급품	127	659	617	613
수입	88년	89년	90년	91년상반기
총액	23,367	18,535	12,457	3,823
0식료품·동물	3,834	2,873	2,029	322
1음료·담배	17	10	0	0
2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원재료(광물성연료를 제외)	3,666	3,503	1,790	546
3광물성연료·운할유·기타 여기에 속하는 제품	5,779	5,149	3,341	1,636
32석탄·코크스·연탄	5,708	4,852	3,279	1,607
4동물성 또는 식물성의 유지·납	0	0	0	0
5화학공업생산물	1,530	691	372	544
6원료별제품	8,856	5,986	4,638	747
66기타비금속광물제품	2,789	1,933	795	33
67철강	3,912	2,951	3,476	419
68비철금속	2,001	1,010	306	283
7기계·수송기계	31	62	83	18
8잡제품	23	24	24	5
9특수취급품	9	238	181	4

〈표 35〉 중국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수량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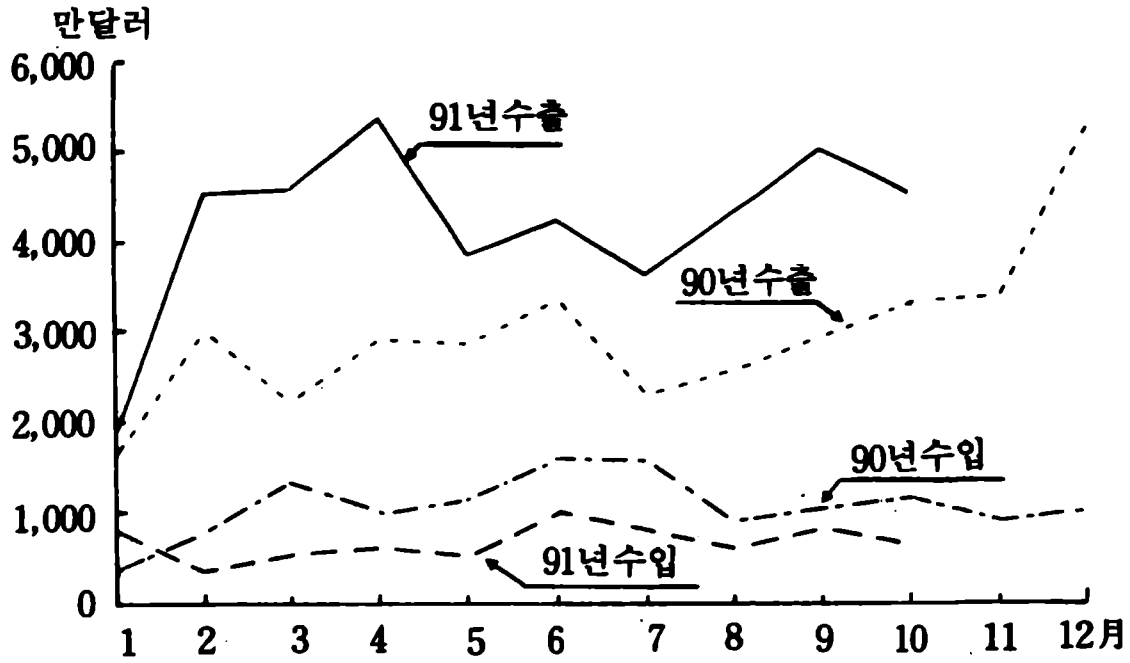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1-3	91.4-6	91.7-9
수 출										
0440	옥수수	수량	126,729	89,309	164,978	296,140	264,609			
		금액	14,179	5,836	21,506	41,796	30,622			
3330	원유	대북한 수량	1,222,754	1,236,741	1,202,021	1,073,463	1,062,552	292,820	250,214	270,065
		금액	78,495	78,201	75,534	64,600	61,310	32,071	34,676	31,123
		단가	64	63	63	60	58	110	139	115
		대세계 수량	28,498,250	27,225,373	26,045,339	24,388,350	23,978,675	5,868,740	4,978,440	N.A.
		금액	2,391,546	3,140,970	2,557,182	2,750,059	3,401,861	692,486	766,881	N.A.
		단가	84	115	98	113	142	118	154	N.A.
수 입										
03	어패류, 동조제품	수량	99,972	48,585	55,681	30,366	28,968			
		금액	36,782	17,842	31,928	18,993	13,231			
422	정미(쇄미포함)	수량	20,371	25,655	37,107	66,409	43,272			
		금액	2,363	2,566	5,323	10,880	6,786			
3221	무연탄	수량	1,955,601	1,717,439	1,596,749	1,446,415	1,172,424			
		금액	57,242	58,118	57,083	48,518	32,783			
67	철강	수량	286,804	180,765	126,253	106,409	112,134			
		금액	74,603	58,149	39,119	29,513	34,757			

註 : 원유의 단가는 금액을 수량으로 단순하게 나눈 것.

單位 : 수량은 톤, 금액은 1,000달러, 단가는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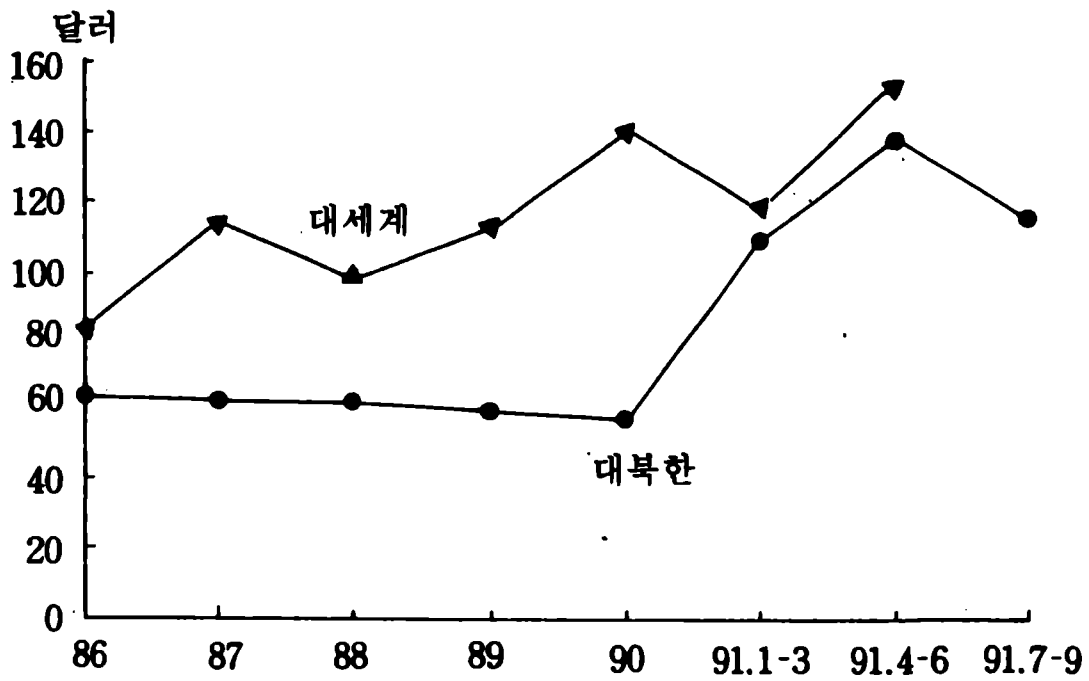
出處 : 86~90년은 「중국해관통계적요」, 「중국해관년감」 각호, 91년 1~9월의 원유는 해관총서의 통계에 따라 작성.

〈도표 9〉 중국의 대북한무역(1990년 1월~91년 10월)



出處 : 해관총서통계(속보) 각 월에 따라 작성.

〈도표 10〉 중국의 원유수출단가



註 : 수출액 / 수출량

單位 : 달러 / 톤

出處 : 표 35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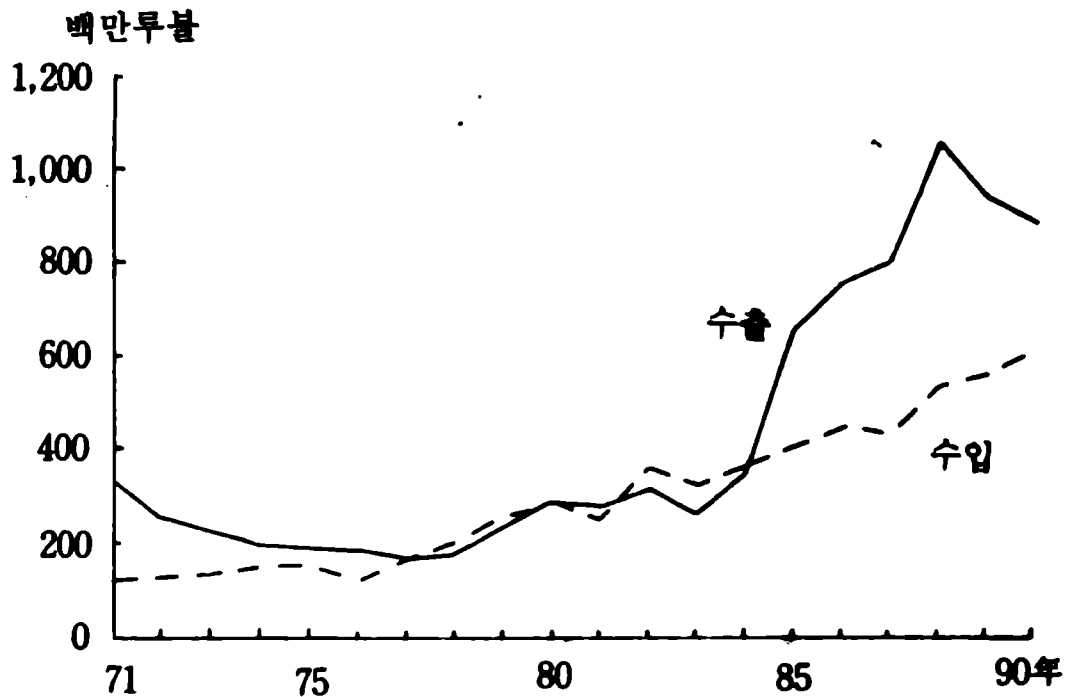
(2) 소련

소련의 대북한무역은 루블에 의한 거래액을 보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수지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신장되어 왔다. 덧붙여서 말하면 75~84년의 연평균증가율은 수출이 7.1%, 수입이 10.3%였다. 그 이후 수출은 84년의 3억 4,700만 루블에서 88년에는 10억 6,200만 루블, 수입은 3억 2,400만 루블에서 5억 4,000만 루블로 급격하게 늘었다. 84~88년의 연평균증가율은 수출이 32.3%, 수입이 10.2%로 수출의 신장이 수입의 증가를 압도하는 결과를 보였다. 88년의 소련측의 흑자는 5억 2,200만 루블로 크게 늘었다. 그후 90년까지 수출은 연평균 8.6% 감소, 수입은 6.5%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90년의 수출은 8억 8,700만 루블, 수입은 6억 1,200만 루블이 되고, 흑자는 2억 2,200만 루블로 축소됐다(그림 11). 품목별로 보면 90년의 경우 수출에서는 기계·수송기기가 가장 많고, 금액으로도 전체의 22.4%를 차지한 외에, 화물자동차(9.6%), 섬유공업용설비(4.5%), 원유(4.5%), 석탄(3.4%) 등이 상위에 위치한다(표 36). 북한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소련이 차지하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생각할 때 북한이 소련에 기계류, 에너지를 상당히 의존해 왔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단, 소련의 에너지관련품목의 대북한 공급은 수량측면에서 볼 때는 수년동안 감소하는 경향이고(표 37), 북한의 국내 에너지사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90년의 수입에서는 오우버·상외류(전체의 53.6%), 기계설비·수송기기(16.8%)가 주요품목이 되고 있다(표 36). 쌀은 종래에는 주요 수입품목의 하나로서 87년 15만톤, 88년 19만톤이 수입되었지만, 89년에 1,400톤으로 격감한 후 90년에는 제로가 되었다.⁴⁾ 종래의 소·북한무역은 청산제도와 의무적 공급품목을 열거한 연차(年次) 정부간의정서에 의하여 행해져 왔다. 소련은 북한과의 사이에서 보상무역(위탁가공)을 하여, 북한의 대소련수출을 촉진해 온 외에, 신용공여로 북한의 대소수입을 지원해 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소련 채무의 변제기간을 연기하는 것을 종종 허락해 왔다.⁵⁾ 즉 전술한 소련측의 흑자의

상당부분은 사실상 「감춰진 원조」⁴⁶⁾가 되어 왔다고 해도 좋다. 이러한 무역구조를 가지고, 80년대 중반부터 소련의 대북한무역, 특히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으로서 84년 5월 김일성주석의 모스크바방문(동구제국순방) 이래 소조관계가 긴밀해진 것을 들 수 있다.⁴⁷⁾ 80년대 말부터 소·북한관계를 둘러싼 변화, 즉 소련의 대한국 관계개선(90년 9월 수교),⁴⁸⁾ 동구사회제국과의 무역에서 경화에 의한 결제의 이행 등은 소·북한무역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91년 4월 28일 평양에서 조인된 91년도 무역·경제협력협정에서 비로소 교환가능통화에 의한 결제와 국제가격에 따른 거래를 결정했다.⁴⁹⁾ 이 협정에는 쌍무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상품리스트와 북한의 대소 채무변제용 리스트가 부수되어 있고, 전자의 리스트는 소련에서 석유, 코크스, 철강, 비철금속, 그외에 산업용설비를 공급하고, 북한에서 소비재, 중수정, 마그네슘산화물과 아연 등의 원재료를 공급하기로 정하고 있다.⁵⁰⁾ 소련의 무역기관은 이 리스트를 사용하여 개별안건에 관해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와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⁵¹⁾ 변제되어야 할 북한의 채무는 종래의 「감춰진 원조」 상당분을 지적한다고 생각되지만, 그 총액은 26억 루블(약 46억 달러) 정도에 이르고, 91년 중에 5억 루블(8억 8,000만 달러)가 소비재, 전자·경공업제품 등으로 변제될 것이라고 한다.⁵²⁾ 이와 같은 새로운 무역방식의 양국간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소련의 급속한 경제붕괴 때문에 상품리스트에 따른 쌍무적공급 특히 소련으로 부터의 공급이 곤란하게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소련의 영문 월간지 Foreign Trade 91년 6월호에 따르면 91년 1~3월에 소련의 대북한수출은 1억 3,760만 루블, 수입은 9,420만 루블이었다. 이것을 단순히 연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5억 5,040만 루블, 3억 7,680만 루블이 되고, 전년도의 실적에 비해 모두 38%가 감소한 것이 된다.⁵³⁾ 한편 이것보다 더욱 비관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91년 9월말부터 10월초에 걸쳐서 서울에서 개최된 「북한경제심포지움」에서 소련외무성의 모이세예프참사관은 91년 1~7월의 대북한수출은 1,100만 루블, 수입은 1억 9,700만 루블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것을 단순히 연액으로 환산하여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수출은 97.9%감소, 수입은 44.8%가 감소한 것이 된다. 특히 수출이 격감하고 있어서 품목별로는 기계·설비는 예정된 370만 루블 상당 물량이 5만 루블 상당, 코크스는 11.5만톤이 4.5만톤, 원유는 30만톤이 4.1만톤 밖에 공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⁵⁵⁾ 모이세예프는 이것은 단기적인 것으로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소련의 경제붕괴속도가 그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소련과의 무역의 변모에 따라 원유등 에너지의 부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보수부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이제까지 기계·설비를 소련에 의존해 왔다) 북한의 광공업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림 11〉 소련의 대북한무역



〈표 36〉 소련의 대북한무역(주요품목별)

	단위	89년		90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비율	전년비
수 출			941.0		887.0	100.0	△5.7
기계설비·수송기기	-	-	122.0	-	199.0	22.4	63.1
에너지관련설비	-	-	23.0	-	21.0	2.4	△8.7
섬유공업용설비	-	-	19.0	-	40.0	4.5	110.5
봉제공업용설비	-	-	5.4	-	2.7	0.3	△50.0
계측기·실험용설비	-	-	2.9	-	2.8	0.3	△3.4
화물자동차	대	2,103	16.0	8,558	85.0	9.6	431.3
항공기	-	-	5.4	-	3.7	0.4	△31.5
석탄(원료탄, 무연탄을 포함)	1,000t	749	33.0	682	30.0	3.4	△9.1
석탄 코크스	1,000t	190	18.0	145	13.0	1.5	△27.8
원 유	1,000t	506	58.0	410	40.0	4.5	△31.0
석유제품·액체연료	1,000t	104	22.0	99	19.0	2.1	△13.6
크롬 광	1,000t	18	1.7	19	1.7	0.2	0.0
비광물자원·점토·토	-	-	3.0	-	2.3	0.3	△23.3
합금철	t	6,340	2.9	6,019	3.6	0.4	24.1
압연강재	1,000t	80	15.0	7	4.5	0.5	△70.0
면화	t	8,596	12.0	7,290	11.0	1.2	△8.3
면포·면타입의 천	100萬m	28	14.0	25	19.0	2.1	35.7
모직물·모직물타입의 천	1,000m	6,289	28.0	3,525	15.0	1.7	△46.4
세탁비누	t	771	0.3	-	-	-	-
가정용기기(라디오제외)	-	-	2.0	-	1.0	0.1	△50.0
T V	1,000대	14	1.4	16	2.9	0.3	107.1
수 입			562.0		612.0	100.0	9.1
기계설비·수송기기	-	-	50.0	-	103.0	16.8	106.0
금속절삭용공작기계	대	1,552	14.0	1,762	16.0	2.8	14.3
전기기기	-	-	25.0	-	19.0	3.1	△24.0
бат 데 리	-	-	21.0	-	15.0	2.5	△28.6
선박·선박용기기	-	-	6.8	-	3.0	0.5	△55.9
비광물자원·점토·토	-	-	6.9	-	7.9	1.3	14.5
압연강재	1,000t	230	72.0	144	46.0	7.5	△36.1
화학제품	-	-	5.6	-	3.3	0.5	△41.1
세멘트	1,000t	220	5.5	154	3.9	0.6	△29.1
마그네사이트 분말	1,000t	362	52.0	303	44.0	7.2	△15.4
전분	t	8,270	1.8	6,946	1.5	0.2	△16.7
오바·상의(혁명제·모피 제품을 제외), 하의(니트 제품을 제외)	-	-	292.0	-	328.0	53.6	12.3
상하의 니트제품	-	-	2.7	-	4.9	0.8	81.5
타올	1,000매	6,123	2.7	11,212	4.7	0.8	74.1
도자기	-	-	1.5	-	2.1	0.3	40.0

單位：백만루블, %.

出處：소련외국무역통계.

〈표 37〉 소련의 대북한 에너지관련 수출

	87년	88년	89년	90년
석 탄	79	80	74.9	68.2
석 탄 코 크 스	23.1	23.7	19	14.5
석 유	80	64	50.6	41

單位 : 만톤

出處 : 소련외국무역통계에 의해 작성.

제 5 절 변화하는 북한의 대외무역 전략

전절까지 보아온 것을 정리하면 첫째, 80년대 중엽부터 90년에 걸쳐서 북한의 대외무역이 2배 증가하였다는 것, 둘째, 그동안 수입의 신장이 수출의 증가를 상회한 결과로 대폭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 셋째, 대외무역의 증가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진 대소무역의 증가에 의한 것이 컸다는 점, 넷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이란 등과의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대외무역구조를 변경시킬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고 있지 않다는 것, 다섯째, 많은 나라들에서 북한과의 무역을 촉진하려고 하지만 북한의 지불능력 부족이 장애로 간주되고 있는 것, 여섯째, 광물·광물가공품 등을 수출하여 자본재, 원유 등을 수입하는 구조(섬유 등의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일부국가에서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제외)도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 등이 될 것이다. 또 91년에 들어와서 부터의 움직임으로서는 첫째, 경화에 의한 결제의 이행과 소련경제의 급속한 악화로 인해 대소무역이 격감하고 있는 것, 둘째, 그 결과로 에너지의 부족과 아울러 자본재·보수부품의 부족이 북한의 생산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셋째, 중국에서의 수입증가는 계속되고 있으며 원유가격이 국제가격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그러나, 원유의 수출량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 특히 소련경제의 곤란을 근거로 하면, 91년의 대외무역은 전년실적을 크게 밑돌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변화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는 가를 알아보자.

조선노동당의 월간지 「근로자」 91년 4월호는 한수길무역부부부장⁵⁶⁾의 논문 「대외무역의 발전은 경제건설에 있어서 절실한 현실적 요구」를 게재하고 대외무역을 중시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이것 자체는 이미 79년에 김일성주석의 「신년사」에서 대외무역(수출우선)을 중요한 과제로서 처음 취급하고 있는 것에서 보면⁵⁷⁾ 특별히

내세울만한 새로운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합영법의 제정으로 대외무역에 있어서 획기적인 해가 되었다) 84년 이후에 발표된 무역에 관한 문헌과 비교하여 읽으면, 한수길의 논문은 과거의 자세로부터의 대전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8). 한수길의 논문 이전의 문헌은 기본적으로 79년의 「신년사」를 답습하여 무역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시해야 할 무역상대국을 첫째, 사회주의국가, 둘째, 개발도상국, 셋째, 북한에 우호적인 자본주의국가의 순으로 정하고 있다. 또 「신용제일주의」를 엄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 스스로 자국의 신용결여가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김정기의 논문(88년 5월)에서는 (아마도 한국 등 NIES를 의식하여)북한의 경우 무역전체에서 차지하는 「가공무역, 전매무역(중계무역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의 비율이 상당히 낮고, 자립적인 무역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까지 하였다.⁵⁸⁾ 한편 한수길의 논문에서는 「국제정치정세의 급변이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현상을 총괄하고 있다. 무역상대로서는 아시아제국과의 무역협력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호적인 자본주의국가를 등장시키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라는 글자는 이 논문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외화수입을 증대시키면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터무역과 함께 「전매무역·가공무역」등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 한수길의 논문에는 이미 과거의 문헌같은 실적의 과시(倍數)는 있어도 수치적인 목표의 제시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는 소련·동구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결과로 종래의 사회주의국가간의 무역시스템이 이미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는(석유·자본재 등)필요한 것을 경화결제·국제가격을 기초로 하는 무역시스템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해도 좋다. 제3절 등에서 본 것 같이 91년에 대동남아시아 경제외교가 활발했던 것은 이 한수길의 논문에 나타난 인식선성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또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한 「전매무역, 가공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

으로 등장한 것이 중·소와의 국경을 흐르는 두만강유역을 중계무역항으로, 그리고 외자의 참여를 인정하는 수출가공구역으로 만들려는 구상일 것이다(宮塚利雄 「북한의 합작사업과 경제특구」 제5장 참조).⁵⁹⁾

91년에 들어서고 부터는 이와 같은 새로운 인식과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79년이래로 대외무역에서 일정한 수준의 적극성을 내세우면서도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새로운 정책도 성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표 38〉 북한의 「대외무역」 논조

	<p>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 결정 「남남협력과 대외 경제사업을 강화하여 무역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84년 1월 26일)¹⁾</p>	<p>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계획에 관하여」 (87년 4월 21~23일)²⁾</p>	<p>김정기(사회과학원 세계경제·남남협력연구소)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관계에 관해서」 (88년 5월)³⁾</p>	<p>김달현(부총리·대외경제위원장·무역부장) 「대외무역의 발전은 사회주의 건설속진의 중요한 보장」 「로동자」 (89년 2월호)⁴⁾</p>	<p>한수길(무역부 부부장) 「대외무역의 발전은 경제건설에 있어서 절실한 현실적 요구」 「로동자」 (91년 4월호)⁵⁾</p>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6년 동안에 2.2배 증가 ○ 수출입구조도 현저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년부터 83년에 걸쳐서 2.2배 증가 ○ 85년 시점에서 100억달러 수준 돌파 ○ 수출입구조도 현저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정치정세의 급변이 대외경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무역상대국 사회주의 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 ○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과 경제협력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 ○ 기계설비 등 중공업제품과 경공업제품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원료, 연료와 설비의 수입을 한층 증대시켜서 5~6년 내에 무역고를 현재의 10배로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시장을 계속 중요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커다란 비중과 중요한 위치 ○ 수출구조개선에 있어서 긍정적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의 부분, 중요한 부분을 담당 ○ 사회주의 시장은 견고하고 안전함 ○ 상호의 편의와 이익을 돕는 유리한 방법으로 거래 	

<p>개발도상 제 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 단기간내에 동남아시아제국과의 수출입물자의 종류를 늘이고, 무역액을 하루빨리 높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을 확대하고, 농업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합작과 각종 형태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남협력의 정신을 기초로 경제기술적협력을 확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을 확대 추진하여 상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제국과의 무역협력을 강화, 최우선시한다.
<p>자본주의 제 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나라와 경제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자본주의제국과의 통상교류를 단절시키지 않고 확대해 왔다. ◦ 비철금속, 철강재, 시멘트등의 생산증대로 우리나라의 지불능력이 높아졌다. ◦ 무엇보다도 국교가 있는 유럽제국과의 교류를 발전시킨다. ◦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와의 교류도 발전시킨다. ◦ 상호이익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나라와 우호적으로 접촉하는 자본주의 제국과는 평등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나라와 우호적으로 접촉하는 자본주의 제국과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통상교류와 합작등 경제관계를 확대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호적인 자본주의 제국과는 평등하게 호혜의 원칙에 기인하여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기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제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기간중에 3.2배로 증대 ○ 신용제일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경제협정을 위반하지 않고 이행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년대말~80년대초, 기업과 지방의 무역권한을 확대했음. ○ 가공무역, 전대무역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이 특징의 하나이다. ○ 국내원료를 채집, 가공, 완성시켜서 수출하는 것이 수출구조개선의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제일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면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부 원료, 자재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수입을 증대시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마음대로 구입하고,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 전대무역, 가공무역, 바터무역 등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 대외무역은 신용제일주의
------	---	--	---	--	---

出處 : 1) 「아시아동향 연보 1985년판」, 85~89페이지.

2) 「아시아동향 연보 1988년판」, 96~97페이지

3) 88년 5월 「조선관계 전문학자의 국제과학토론회」, 경제분과회 (평양)에서의 보고, 「월간조선자료」 제30권 제4호 (1990년 4월), 58~63페이지에 「조선의 대외 경제관계에 관해서」로 게재.

4) 「일조무역」, 제 368호 (1989년 10월), 10~17페이지.

5) 「월간조선자료」, 제31권 제9호 (1991년 9월), 73~78페이지.

〈참 고 문 헌〉

*북한은 자신들의 무역통계를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고의 작성에는 일본무역진흥회의 해외사무소 및 해외조사부의 동료들로부터 협력을 얻어 수집, 작성한 각국의 무역통계를 이용하였다.

- 1) 「세계와 일본의 무역-일본무역진흥회백서·무역편, 1991년판」, 일본무역진흥회, 1991년 8월, 236-238페이지.
- 2) DOT도 제트로의 추계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무역상대국의 통계에 기초하여 추계하고 있다. DOT가 커버하는 국·지역수는 91년판 북한란의 경우 91이다. 단, 각년도별 판에 따라 국·지역수를 달리하고 있고, 이를테면 이라크는 90년판부터 게재되지 않고 있다. 또한 91년판의 경우 84년부터 90년까지 7년간이 게재되어 있고, 본절에서는 이 기간을 취급하기로 한다.
- 3) 「소련동구무역조사월보」, 소련동구무역회, 제35권 제8호(1990년 8월), 36페이지, 동 제36권 10호(1991년 11월), 36페이지에 게재된 숫자를 수출입으로 교체하여 일부 조정(북한측의 수입액을 CIF베이스로 조정).
- 4) DOT도 이를테면 90년도 북한의 대중국수출액이 중국측 통계에서 어려움을 갖는 등, 다소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번 회에는 그대로 사용했다.
- 5) 덧붙여서 말하면 84-86년의 무역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하면 약 18.1%가 되고, 제3차 7개년계획의 신장율과 일치한다. 이 계획이 지금까지 수년간의 실적을 93년까지 단순히 연장한 것일지도 모른다.
- 6) 87년 전후에는 88년의 서울올림픽의 공동개최를 노리고 경기장의 건설 등이 진전되어 이들 시설이 세계청년학생제전에도 사용되었다. 「제전」관련 건설에는 47억달러가 투자되었다고 한다. 또 88년에는 「공화국창건40주년기념행사」가 성대하게 거행되고 있어, 이것 때문에도 상당한 수입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玉城素, “1987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외에서 누적되는 위기요인,” 「아시아동향연보 1988년판」, 아시아경제연구소, 1988년, 69-71페이지; 同 “1988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긴장과 동요의 나날,” 「아시

아동향연보 1989년판」, 아시아경제연구소, 1989년, 73-74페이지 : 同 “1989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고립화와 붕괴의 위기,” 「아시아동향연보 1990년판」, 아시아경제연구소, 1990년, 70-71페이지 : 江原規由, “동북아시아경제권에 있어서 북한,” 「중국과 북동아시아의 현상과 전망」, 중국문제연구소, 1991년, 31-37페이지 등을 참조.

- 7) 일본무역진흥회 시드니센터의 보고에 의함.
- 8) *Australian Financial Review*, November 6, 1991.
- 9) 뉴우질랜드 무역통계(마이크로릿슈)에 의함.
- 10) 일본무역진흥회 파리센터의 보고, 「통상홍보」, 1991년 3월 27일.
- 11) 제트로 마드리드센터의 보고, 「통상홍보」, 1991년 5월 29일.
- 12) 제트로 코펜하겐사무소의 보고, 「통상홍보」, 1991년 4월 22일.
- 13) 제트로 스톡홀름사무소의 보고, 「통상홍보」, 1991년 5월 1일, 同 5월 9일.
- 14) 제트로 오슬로사무소의 보고, 「통상홍보」, 1991년 5월 2일.
- 15) *South China Morning Post*, April 16, 1991.
- 16) 제트로 방콕센터의 보고, 「통상홍보」, 1991년 5월 2일.
- 17) *Business News*(Jakarta), February 8, 1991, pp. 5-6, February 6, 1991, p.7, *Jakarta Post*, February 4, 1991.
- 18) *New Straits Times*, February 5, 1991, February 6, 1991.
- 19) 제트로 마닐라센터의 보고.
- 20) 필리핀과 북한은 현재 국교가 없지만 89년에 필리핀정부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검토한다고 발표하고 있었다. 북한측은 이번의 방문에서 혐의를 받아 온 필리핀의 신인민군과의 관계를 부정했다. *The Chronicle*, June 12, 1991.
- 21) 제트로 싱가포르센터의 보고.
- 22) 90년 5월 북한 외교부의 차봉주부부장이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ASEAN제국을 순방하면서, 싱가포르에서는 동남아시아와의 경제관계 강화를 절실히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동남아시아가 초대국의 지배를 단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요즈음은 아직 경직된 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다. *Straits Times*, May, 15, 1990.
- 23) 제트로 뉴델리사무소의 보고

- 24) 제트로 카라치사무소의 보고, *Dawn*, October 6, 1991, October 7, 1991.
- 25) 제트로 이스탄불사무소 보고, 「통상홍보」, 1991년 5월 30일.
- 26) 합의에는 북한에서는 어선, 강판, 선반, 모터펌프, 아연판, 전기기기 등, 이란에서는 유황, 철, 크롬광, 비철금속정광(이들은 북한에서 제품화된 후, 이란으로 다시 수출된다)을 각각 수출하기로 되어 있다. 또 광업·어업분야에서도 협력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양국의 주요 협력분야는 병기산업으로 북한은 이란의 주요 무기공급국의 하나라고 전해지고 있다. 87년 상반기에 만도 북한은 250억 5천만 달러분의 병기를 이란에 공급하여 제2의 무기공급국이 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어떠한 발표도 없다. *Iran Yearbook '88*, Bonn : M & B, 1988, pp. 325-326.
- 27) *Iran Yearbook '89-90*, pp. 325-326.
- 28) 「신아=공동」, 1991년 3월 6일.
- 29) 「新潟日報」, 1991년 11월 18일.
- 30) 제트로 달에삼사무소의 보고, 「통상홍보」, 1991년 5월 31일.
- 31) 제트로 아비잠사무소 보고.
- 32) 제트로 보고타사무소 보고.
- 33) 제트로 리마센터 보고.
- 34) 제트로 바르샤바사무소 보고, 「통상홍보」, 1991년 4월 26일.
- 35) 제트로 빈센터 보고.
- 36) 제트로 베오그라드사무소 보고.
- 37) 거꾸로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의 쌀 수출은 86-90년 사이에는 87년의 5만 787톤의 통계기록을 갖고 있을 뿐이다.
- 38) 「RP북한정책동향」(라디오프레스) 각호, 세계정경조사회편, 「한국·북한요람」, 1991년판, 세계정경조사회, 1991년 등 참조.
- 39) 「讀賣新聞」, 1991년 5월 16일자는 일본정부소식통을 인용하여, 일본을 방문한 李嵐清 대외경제무역부장이 中山太郎의상에게 전한 바에 의하면, 5월 3-6일에 이봉총리, 李嵐清부장 등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에 이 방침을 최종적으로 분명히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 40) 「일본경제신문」, 1991년 10월 12일,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12, 1991 등.

- 41) Nayan Chanda, "Beijing Tries to Balance Ties with Korea," *Asian Wall Street Journal*(AWST), October 21, 1991은, 중국정부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김주석의 중국방문에 즈음하여 중국측이 「금후의 대북한 석유공급의 반은 경화, 국제가격으로 행하고, 나머지 반은 무상으로 한다」고 통고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홍콩의 월간지 「爭鳴」, 1991년 11월호는 중국은 ① 석유 50만톤을 우호가격으로, 50만톤은 바터거래로, 75만톤은 국제시장가격보다 싸게 제공한다.(합계 175만톤), ② 매년 60억元の 무이자 차관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産經新聞」, 1991년 11월 27자는 일본정부측의 말을 인용하여, 중국은 석유, 석탄, 식량을 각각 100만톤씩 긴급히 원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하고 있다. 양적인 수치가 명확하지 않은 AWSJ를 제외하고, 아무래도 위의 숫자는 이제까지의 중국의 대북한 공급 실적에 비하면 너무나 큰 인상이 있다. 또 「爭鳴」의 경우 그 자매지인 「動向」이 일관하여 中朝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羅冰, "중·월, 중·북한 공산당 비밀회담," 「動向」, 1991년 8월호 ; 동 "5억의 군사원조," 「동향」, 1991년 10월호 참조.
- 42) 이를테면 90년의 무연탄 수출단가는 북한쪽이 톤당 46달러, 세계쪽은 30달러, 「그외의 석탄」은 각각 42달러, 39달러, 코크스는 77달러, 68달러이고, 원유의 「우호가격」 방식이 두드러지고 있다.
- 43) 어떤 동구권 외교관의 코멘트, 「뉴스위크」 일본어판, 1991년 10월 24일.
- 44) 高橋浩, "소련과 한국·북한의 경제관계," 「소련에 있어서 대외경제 관계의 전망—아시아·태평양지역과 극동경제를 중심으로」, 總合研究開發機構, 1990년, 58페이지에 있는 A. I. 페트로프, V. A. 카이에의 「1971~1975년의 사회주의제국의 발전」, (모스크바, 1977년)에 따르면 소련의 소맥과 북한의 쌀이 바터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소련의 소맥의 대북한 수출이 87년에 29만톤, 88년에 36만톤에서 89년에는 제로가 되었다는 것과 쌀의 대북한 수입이 없어진 것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요즘의 양국 경제관계의 냉각이라는 보다 커다란 배경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45) 高橋, 「소련과 한국·북한의 경제관계」, 57-59페이지.
- 46) Valentin I. Moiseyev, "USSR-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North Korean Economy, September 30-October 2, 1991, Seoul.
- 47) 小牧輝夫, “1985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제활성화에 노력,” 「아시아·중동동향 연보」, 아시아경제연구소, 1986년, 62페이지 ; 伊豆見元, “북한의 대외정책,” 小此木政夫編, 「기로에 선 북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1988년, 116-117페이지.
- 48) 横手慎二, “소련의 북동아시아 정책(1986~1991년)-소·한관계를 중심으로,” 西村明, 渡邊利夫編, 「환황해경제권-동아시아의 미래를 살핀다」,九州대학출판회, 1991년, 29-44 페이지 등 참조.
- 49) 90년 9월의 세바르드나제외상의 방한시에 대한국 국교수립의 의사와 대북한 무역의 근본적인 개정을 통고했다고 한다. 玉城素, “1990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심각한 ‘고립화·경제난’ 탈출작전,” 「아시아동향연보」, 아시아경제연구소, 1991년, 60페이지.
- 50) 「조선통신」=「일본경제신문」, 1991년 4월 30일, 모스크바방송(조선어) 1991년 5월 13일=Summary of World Broadcastings, USSR(SWB), May 24, 1991, Moiseyev 앞에 게재. 단 SWB가 상품리스트를 「의무적 공급상품리스트」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에 대해 Moiseyev는 지시적 리스트로 하고 있다. 후자가 물론 강제성이 적다. 그리고 러시아공화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처음의 무역·경제협정이 9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여기에서도 경화에 의한 결제가 호평받고 있다. 모스크바방송 1990년 12월 26일=SWB, Jan. 4, 1991.
- 51) Moiseyev 앞에 게재.
- 52) 모스크바방송(조선어) 1991년 8월 21일=SWB, August 30, 1991. 그리고 팔호안의 달러액은 한국내외통신을 인용하여 서울발로 1991년 5월 1일 공동통신이 전한 것을 「매일신문」, 1991년 5월 2일자가 재인용.
- 53) 수출입의 전년대비 감소율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이들 숫자가 전년실적에서 산출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 54) Moiseyev 앞에 게재. 전술한 대로 Foreign Trade의 숫자는 상당히 단순한 추정일 가능성이 강한데 대해, 모이세예프가 품목마다의 실적에 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종래부터의 소련의 외국무역 통계자료, 소련 경제기관의 거래자료를 쌓아 놓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 소련 외국무역통계의 문

제점에 대해서는 高橋浩, “소연방의 무역통제,” 平泉秀樹 등의 「코메콘 제국의 무역통제-해설과 통제」, 아세아경제연구소, 1991년, 12페이지 참조.

- 55) 소련의 원유생산은 89년 0.3% 감소, 90년 5.3% 감소, 91년1-6월 10% 감소 등으로 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북한 뿐만 아니라 동구제국에 대한 원유 공급도 감소하고 있다. 이를테면 91년 1-8월에 불가리아에 500만 톤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 249만 톤만 공급되고, 루마니아에 대해서는 100만 톤이 제로가 된 경우 등이다. *Interfax Soviet Business Report*, October 25, 1991, p.10.
- 56) 라디오 프레스 등에서는 韓秀吉로 하고 있다.
- 57) 玉城素, “북한경제의 현상과 문제점,” 三谷靜夫편, 「조선반도의 정치경제구조」, 일본국제문제연구소, 1983년, 126페이지 ; 河合弘子, “북한의 ‘개방정책’과 일조무역,” 小此木政夫편, 앞에 게재, 174-175페이지.
- 58) 전절에서 본 대로 실재는 소련과의 사이에서는 보상무역=가공무역이 되어 왔다.
- 59) 물론 한수길의 논문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인 경제적 애로의 탈출 방책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촉진이고, 그 진전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한국과의 무역의존을 강화하고 있다.

〈별표 1〉 북한의 대외무역(1989~90년, 제트로 추계)

국명	수출			수입		
	89년	90년	증감율(%)	89년	90년	증감율(%)
일본	283,744	285,268	0.5	206,851	184,695	-10.7
서구	56,961	93,681	64.5	193,767	168,315	-13.1
영국	1,445	541	-62.5	7,117	9,376	31.7
프랑스	8,487	11,840	39.5	19,088	12,210	-36.0
독일	36,061	61,099	69.4	135,646	87,042	-35.8
이탈리아	2	5	154.3	25	25	0.6
노르웨이	655	462	-29.4	3,842	3,930	2.3
스웨덴	661	420	-36.4	3,765	14,681	290.0
스페인	6,749	16,387	142.8	1,891	5,819	207.6
네덜란드	738	959	30.0	3,203	4,864	51.9
스위스	912	350	-61.7	8,012	4,047	-49.5
덴마크	275	998	262.4	851	1,608	89.1
오스트리아	975	619	-36.5	10,328	24,713	139.3
벨기에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아시아	167,364	149,628	-10.6	254,350	221,452	-12.9
홍콩	35,722	26,885	-24.7	139,285	112,906	-18.9
싱가폴	51,402	8,019	-84.4	49,090	36,604	-25.4
말레이시아	2,181	19,230	781.8	1,258	448	-64.4
필리핀	808	6,555	711.8	0	0	-
인도네시아	16,088	49,532	207.9	29,266	35,697	22.0
태국	17,283	12,738	-26.3	7,096	4,253	-40.1
파키스탄	85	164	92.5	5	149	3069.0
인도	43,795	26,505	-39.5	28,350	31,395	10.7
스리랑카						
대양주	188	259	37.6	12,496	34,442	175.6
뉴질랜드	6	4	-37.4	24	359	1379.0
오스트리아	182	255	40.0	12,472	34,082	173.3

별 런 스		총 액			비 고
89년	90년	89년	90년	증감율(%)	
76,893	100,573	490,595	469,963	-4.2	
-136,807	-74,634	250,728	261,996	4.5	
-5,672	-8,834	8,562	9,917	15.8	
-10,601	-371	27,575	24,050	-12.8	
-99,585	-25,942	171,707	148,141	-13.7	
-23	-20	27	30	11.5	
-3,187	-3,467	4,497	4,392	-2.3	
-3,104	-14,261	4,426	15,101	241.2	1-11월
4,858	10,568	8,640	22,205	157.0	
-2,465	-3,904	3,940	5,823	47.8	1-11월
-7,100	-3,698	8,924	4,397	-50.7	
-575	-610	1,126	2,606	131.5	
-9,353	-24,094	11,303	25,333	124.1	1-9월
-86,986	-71,824	421,713	371,080	-12.0	
-103,563	-86,021	175,007	139,791	-20.1	
2,312	-28,585	100,492	44,623	-55.6	
923	18,782	3,439	19,678	472.2	
808	6,555	808	6,555	711.8	
-13,177	13,835	45,354	85,229	87.9	
10,187	8,485	24,379	16,991	-30.3	1-9월
81	15	90	313	247.9	88/89, 89/90년도(7-6월)
15,445	-4,890	72,145	57,900	-19.7	88/89, 89/90년도(4-3월)
-12,308	-34,183	12,684	34,701	173.6	
-18	-356	30	363	1101.9	
-12,290	-33,828	12,654	34,337	171.4	88/89, 89/90년도(7-6월)

국명	수출			수입		
	89년	90년	증감율(%)	89년	90년	증감율(%)
중동아프리카	5,775	2,933	-49.2	6,557	33,385	409.1
터어키	206	824	299.6	3,917	28,267	621.6
알레리아	75	155	105.6	0	0	-
이집트	31	835	2556.1	2,625	5,114	94.8
나이지리아	17	579	3265.2	5	4	-7.9
자이레	5,430	375	-93.1	0	0	-
코트디부아르	6	13	102.5	11	0	-100.0
카메룬	9	153	1631.2	0	0	-
미주	8,478	2,006	-76.3	5,940	600	-89.9
미국	480	0	-100.0	18	35	100.0
카나다	195	10	-94.9	1,684	562	-66.6
멕시코	0	0	-	0	0	-
칠레	218	27	-87.6	157	3	-97.9
아르헨티나	0	1,053	-	0	0	-
페루	7,043	463	-93.4	4,081	0	-100.0
콜롬비아	543	454	-16.4	0	0	0-
베네주엘라						
브라질						
코스타리카						
사회주의국	1,087,281	1,181,856	8.7	1,880,572	1,892,187	0.6
소련	891,171	1,045,108	17.3	1,495,144	1,517,756	1.5
헝가리	13,163	-	-	18,265	-	-
유고슬라비아	6,684	-	-	1,856	-	-
체코슬로비아	10,945	12,293	12.3	7,680	15,913	107.2
폴란드	2,391	-	-	3,676	-	-
중국	185,165	124,455	-32.8	377,747	358,518	-5.1
불가리아						
합계	1,609,791	1,715,631	6.6	2,560,533	2,535,076	-1.0

註 : * = 합계에 포함하지 않음. 「국명」에는 지역도 포함.

單位 : 1,500달러.

出處 : 각국무역통계에서 제트로가 추계

별 런 스		총 액			비 고
89년	90년	89년	90년	증감율(%)	
-782	-30,453	12,332	36,318	194.5	
-3,711	-27,443	4,123	29,090	605.5	
75	155	75	155	105.6	1-9월
-2,593	-4,280	2,656	5,949	124.0	
13	574	22	583	2582.0	1-5월
5,430	375	5,430	375	-93.1	
-4	13	17	13	-24.0	1-6월
9	153	9	153	1631.2	88/89, 89/90년도(7-6월)
2,538	1,406	14,418	2,607	-81.9	
462	-35	497	35	-92.9	
-1,489	-552	1,880	572	-69.6	
0	0	0	0	-	
61	24	375	30	-91.9	
0	1,053	0	1,053	-	
2,962	463	11,124	463	-95.8	
543	454	543	454	-16.4	
-793,291	-710,330	2,967,853	3,074,043	3.6	
-603,973	-472,648	2,386,316	2,562,863	7.4	
-5,102	-	31,428	-	-	*
4,828	-	8,540	-	-	*
3,264	-3,620	18,625	28,206	51.4	1-9월
-1,285	-	6,067	-	-	*
-192,583	-234,063	562,912	482,974	-14.2	
-950,742	-819,446	4,170,324	4,250,707	1.9	

〈별표 2〉 북한의 대외무역(1984-90년)

	수 출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선진공업국(22개국)	282.3	229.1	233.4	331.3	374.0	322.5
호 주	0.1	0.2	0.9	0.2	0.2	0.4
일 본	131.1	161.0	154.3	217.7	293.3	267.5
오스트리아	3.1	0.1		0.5	11.1	1.1
베 네 룩 스	0.3		0.1	0.1	1.0	
프 랑 스	3.5	4.0	7.5	8.6	9.4	9.5
독 일	135.1	56.0	64.1	94.5	41.0	25.5
이탈리아	1.5	1.0	2.0	1.6	2.5	1.9
스 페 인	1.8	2.2	2.1	3.4	3.9	7.3
개발도상국	380.4	401.3	421.8	440.0	526.7	447.3
아프리카(22개국)	3.4	14.4	13.8	14.2	15.1	14.5
아시아(15개국)	310.1	300.7	342.4	325.7	385.9	320.4
방글라데시	10.6	19.7	19.2	11.1	17.4	12.1
중 국	247.5	222.5	255.2	214.7	212.3	166.7
홍 콩	21.2	18.3	20.0	28.9	28.0	34.3
인 도	6.5	7.9	16.9	12.4	14.1	15.2
인도네시아	11.0	6.6	3.8	16.0	8.5	15.4
말레이시아	0.7	0.4	1.8	0.1	16.0	2.6
필 리 핀	1.0	0.9	1.7	4.8	4.3	0.6
태 국	2.7	10.3	7.3	9.4	28.8	17.5
구주(8개국)	51.4	64.1	56.4	65.2	85.2	71.2
체코슬로바키아	10.0	17.3	14.2	11.6	15.3	15.0
헝 가 리	4.3	5.4	5.1	12.6	21.1	16.1
폴 란 드	18.4	20.8	22.5	21.5	23.8	18.3
루 마 니 아	18.2	18.2	13.7	17.3	20.7	14.4
중동(5개국)	13.4	20.4	4.6	0.4	3.9	2.2
서반구(19개국)	2.1	1.7	4.5	34.5	36.6	38.9
멕 시 코				21.0	30.8	30.8
DOT세계계(91개국)	662.7	644.9	669.4	785.9	934.8	794.8
(동전년비증감율, %)	4.2	-2.8	3.8	17.4	18.9	-14.9
소 련	447.9	485.1	642.0	682.7	887.3	890.7
총 계	1,110.6	1,130.0	1,311.4	1,468.6	1,822.1	1,685.5
(동전년비증감율, %)		1.7	16.1	12.0	24.1	-7.5

註: 「개국」에는 지역도 포함.
單位: 백만달러.

90년	수입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360.9	385.3	375.5	330.8	503.2	466.9	419.7	473.1
	23.8	24.5	0.0	40.1	47.7	36.2	96.6
271.2	279.4	274.3	203.7	237.6	262.7	215.8	193.7
0.7	6.5	9.6	3.7	5.5	20.7	9.9	24.2
3.0	2.2	1.1	1.0	2.2	4.5	3.6	12.5
13.1	14.6	8.6	10.5	29.7	16.7	19.0	12.2
50.7	24.9	27.0	42.7	139.7	44.1	81.4	68.7
4.3	9.9	14.4	18.4	17.5	20.6	21.9	21.7
11.3	0.3	2.7	1.5	4.8	4.1	1.7	5.8
448.9	436.5	459.0	504.8	652.5	778.2	813.3	778.7
17.1	1.8	1.3	2.3	3.0	11.2	12.5	2.5
316.7	377.0	383.2	424.6	508.1	638.1	681.1	662.5
15.1	0.3	5.1	0.1	2.8	2.8	0.2	0.5
141.5	248.8	263.0	280.8	304.8	379.7	398.5	403.4
25.8	52.7	55.4	82.1	117.0	128.9	146.8	118.4
47.4	17.7	14.6	4.1	5.2	14.6	31.4	37.4
47.4	17.7	14.6	4.1	5.2	14.6	31.4	37.4
18.4	12.9	1.4	1.4	3.2	5.9	1.5	0.5
7.4	2.9	1.0		10.3		0.1	
23.0	0.2	9.8	14.2	4.8	5.8	7.9	13.8
67.7	53.6	56.9	55.1	84.8	78.6	91.3	84.5
17.7	11.9	16.9	11.1	10.0	12.6	11.0	25.5
6.6	4.1	5.4	4.3	26.2	5.4	23.8	14.0
14.3	23.2	13.4	18.5	27.5	32.8	32.2	32.4
14.3	14.4	20.2	21.1	20.9	20.6	15.1	5.1
2.5	2.5	0.7	14.5	10.0	6.1	2.7	3.1
44.9	1.7	17.0	8.3	46.7	44.2	25.7	26.2
35.7				42.2	42.7	21.6	21.8
809.7	821.8	852.5	848.0	1,177.0	1,277.5	1,263.6	1,251.8
1.9	-15.5	3.7	-0.4	38.8	8.5	-1.0	-0.8
1,047.4	467.9	864.1	1,185.5	1,391.4	1,921.7	1,641.1	1,667.9
1,857.1	1,289.7	1,716.6	2,034.5	2,568.4	3,199.2	2,904.7	2,919.7
10.2		33.1	18.5	26.2	24.6	-9.2	0.5